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SINCE 2002**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목차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소개

### 1. 협회소개

협회개요  
대표소개  
STAFF  
설립배경  
협회연혁  
웹사이트

### 2. 협회비전

### 3. 사업영역

### 4. 행사 및 공연현황

국내  
해외

### 5. 보도자료

국내언론  
해외언론



## 1. 협회소개

01

### 협회개요

---

▶ **협회명**

한국하이든협회 /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설립일**

2002년 6월 7일

▶ **대표**

변 주 영

▶ **주소 및 연락처**

(137-865)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31-10 삼원빌딩 307호

유선전화 : 070-8267-3733

팩 스 : 02-6937-1807

공식웹사이트 : [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

전자우편 : [office@haydnsociety.org](mailto:office@haydnsociety.org)



## 1. 협회소개

### 02 대표소개

▶ **성 명 / 변주영**

▶ **전 공 / 더블베이스 (Kontra bass)**

▶ **학 력**

1988. 02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홍용범 교수님 사사)

1995. 06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Diplom

(Magister 과정 수료, Ludwig Streicher 교수님 사사)

▶ **베이스 Meister 코스**

1994. 08 Josef Niederhammer 교수 더블베이스 Meister 코스 참가  
Mauerbach, Cartusiana (Koussevitzky konzert Solo 연주)

1995. 09 Auersperg 교수 Meister 코스 참가 in St.Paul

1997. 07 Michnori Bunya 교수 Meister 코스 참가 이태리 로마

▶ **현 재**

**2002 ~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 대표**

**2002 ~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아시아 지부장**

**1999 ~ New Classic Community Korea 음악감독**

**2004 ~ 오스트리아 New Classic Community 음악감독**



## 1. 협회소개

03

### STAFF

▶ 성 명 / 성준호

▶ 직 책 / 기획실장

▶ 경 력

2002. 04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국민음악회 기획(세종문화회관)

2002. 11 오스트리아 현대화가 2인 초청전 기획

2003. 03 Haydn Document 작품 서울대 전시회 기획(서울대 공동주최)

2003. 04 Haydn Document 작품 부산대 전시회 기획

2003. 04 Haydn Document 작품 부산예고 전시회 기획

2004. 05 오스트리아 NCC 하이든홀 및 Oberwart 문화원 연주회 기획  
(작곡 이신우 / 연주 클라리넷티스트 김현곤)

2004. 12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 초청 연주회 기획

2005. 01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연주회 기획(스페인 7개 도시)

2007. 11 한국하이든협회와 코레일이 함께하는 오픈콘서트 기획(총 4회)

2009. 03 2009' 국제하이든콩쿠르 기획

2009. 10 Dr. Rudolf Streicher와 함께하는 덕원 Young Artists Concert 기획

2009. 10 비엔나시 주관 Dr. Rudolf Streicher의 하이든 음악여행 기획

2010. 02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기획

2010. 06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전체최우수대상 수상자 위지만 기념연주 기획



# 1. 협회소개

## 04 설립배경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사진-1>



<사진-2>

### 한국하이든협회는...

2002년 6월 7일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Joseph Haydn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에서 대표 L.r Helmut Bieler(사진-1 우측)와 Artistic Director Walter Reicher(사진-2 우측에서 두번째)와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 과의 조인식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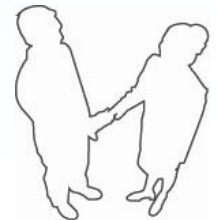
###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시에 본부를 둔 문화단체로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여름 International Haydn Festival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중 특히 하이든 탄생기념음악회나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하이든 관련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하이든의 작품연주에 공헌한 음악가나 앙상블에게 수상을 하는 등의 폭 넓은 문화 활동을 하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 한국하이든협회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Joseph Haydn의 음악을 국내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 및 개발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하이든의 음악을 공유하며, 또한 국내의 유능한 음악가들을 본 협회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단체입니다.





## 1. 협회소개

### 05 협회연혁 2013~2015

2015

- 2015. 04. 09 - Gustav Klimt & Egon Schiele 展 (Gallery U.H.M 개관기념)  
(주최: 하이든문화재단, Gallery U.H.M)

2014

- 2014. 07. 19 - 구스타프 클림트&에곤실레 부산전시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주최: 하이든문화재단, 부산일보사, 부산시민공원)
- 2014. 03. 13 - 구스타프 클림트&에곤실레 울산전시 (현대예술관 미술관 )  
(주최: 하이든문화재단, 현대예술관, 울산MBC)
- 2014. 01. 18 - Gustav Klimt & Egon Schiele 展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주최: 하이든문화재단, YTN)

2013

- 2013. 08. 14 - 2013'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한국하이든 문화재단 주관  
오스트리아 하이든 실로스 카펠레, 비엔나 하이든협회 후원



## 1. 협회소개

05

협회연혁 2010~2012

2012

- 2012. 12. 22 - 2012' 국제하이든콩쿨 개최 - 후원 : 오스트리아 하이든 쉴로스 카펠레, 비엔나 하이든협회
- 2012. 12. 02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2012. 11. 07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PALAIS PALFFY)
- 2012. 11. 06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Erlöserkirche "AM SCHÜTTEL")

2011

- 2011. 12. 18 - 2011'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 - 후원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덕원예술고등학교

2010

- 2010. 06. 02 -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최우수 대상자 위지만 기념연주(오스트리아 하이든홀)
- 2010. 06. 02 - 모차르트 공원 유치 기자회견 및 리셉션(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에스터하지성)
- 2010. 02. 17 -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한국하이든 문화재단 주관,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후원





## 1. 협회소개

05

협회연혁 2008~2010

2010

- 2010. 06 - 국제하이든콩쿠르 전체 최우수대상 수상자 “위지만” 기념연주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에스터하지성 하이든홀)
- 2010. 06 - 모차르트 공원 유치 기자회견 및 리셉션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에스터하지성 하이든홀)
- 2010. 02 -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 - 하이든문화재단 주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후원

2009

- 2009. 10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주관 Dr. Rudolf Streicher의 하이든 음악여행 (세종문화회관)
- 2009. 10 - Dr. Rudolf Streicher와 함께하는 덕원 Young Artists Concert (세종문화회관)
- 2009. 06 - 2009'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 - 하이든문화재단 주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후원
- 2009. 04 -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주최 기자간담회 (하얏트호텔)
- 2009. 03 -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후원 - 하이든 프로그램 (국립극장)
- 2009. 03 -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행사 (한강유람선상)
- 2009. 03 - 하이든 그림 48점 전시회 및 하이든 콰르텟 연주 리셉션 (국제문화교류재단)
- 2009. 03 - 오스트리아 Esterhazy 문화재단 하이든 재단 세미나 (조선포텔)

2008

- 2008. 09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정기연주회 후원
- 2008. 03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1. 협회소개

## 05 협회연혁 2004~2007

2007

- 2007. 11 - 한국하이든협회와 코레일이 함께하는 오픈콘서트 주최 (총 4회)
- 2007. 09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7. 03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2006

- 2006. 06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후원
- 2006. 04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6. 03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2005

- 2005. 06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후원
- 2005. 04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5. 03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5. 01 -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연주회 (스페인 7개도시)  
스페인 ▶ Vigo / Avila / Segovia / Burgos / Miranda / Cartagena / Tarragona

2004

- 2004. 12 -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 초청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주최 (예술의전당)
- 2004. 10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4. 09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4. 06 - 서울라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후원
- 2004. 05 - 오스트리아 NCC Oberwart 문화원 연주 주최 (작곡 이신우 / 연주 클라리넷티스트 김현곤)
- 2004. 05 - 오스트리아 NCC 하이든홀 연주회 주최 (작곡 이신우 / 연주 클라리넷티스트 김현곤)



## 1. 협회소개

05

협회연혁 2002~2003

2003

- 2003. 06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정기연주회 후원
- 2003. 05 - 한국음악대학 합창음악제 후원
- 2003. 04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3. 04 - Haydn Document 부산예술고등학교 전시행사 주최 (부산예술고등학교 일신갤러리)
- 2003. 04 - Haydn Document 부산대학교 전시행사 주최 (부산대학교)
- 2003. 03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청소년 음악회 후원
- 2003. 03 - Haydn Document 서울대학교 전시행사 서울대와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002

- 2002. 12 - 경남 합천해인사 특별연주회 주최
- 2002. 12 - 서울 한빛맹아원 자선 음악회 주최
- 2002. 12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연주회 (영산아트홀)
- 2002. 11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오스트리아 현대화가 2인전 (서울 서초동 갤러리 홍의)
- 2002. 06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오스트리아 특별연주회 (오스트리아 하이든홀)
- 2002. 06 - 한국하이든협회 설립 협약식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 1. 협회소개

## 06 공식웹사이트


한국하이든협회
About Us
Haydn Story
Concert Info
Press
Community

Login  
 내 정보  
 회원가입  
 1:1문의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www.haydnsociety.org




**한국하이든협회 소개서**

Download




**공연소식 및 행사안내**

Go



**국제하이든콩쿠르 신청서**

Download



**언론보도자료**

Go

**NOTICE&NEWS** MORE >


- **중학교 졸업예정자 참가곡 안내** NEW 2010-01-29
- **콩쿠르 문의전화 운영시간 안내** NEW 2010-01-28
- 회원정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2010-01-05
-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안내** NEW 2009-12-15
- 하이든 트리오 마이젠슈타트 공연.. 2009-12-15

**CONCERT INFORMATION** MORE >

-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공연
- 하이든 트리오 마이젠슈타트 연주회
- 하이든 필하모니 (Haydn Philharmonie) 내한공연
- 한국하이든협회와 함께하는 코레일 오픈콘서트 출정..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40주년 기념연주회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Joseph Haydn

- 대회일시 : 2010. 2. 17(수)
- 장 소 : 서울예술고등학교
- 접수마감 : 2010. 2. 12(금)까지
- 경연부문 : 피아노 / 현악 / 목관 / 금관  
성악 / 실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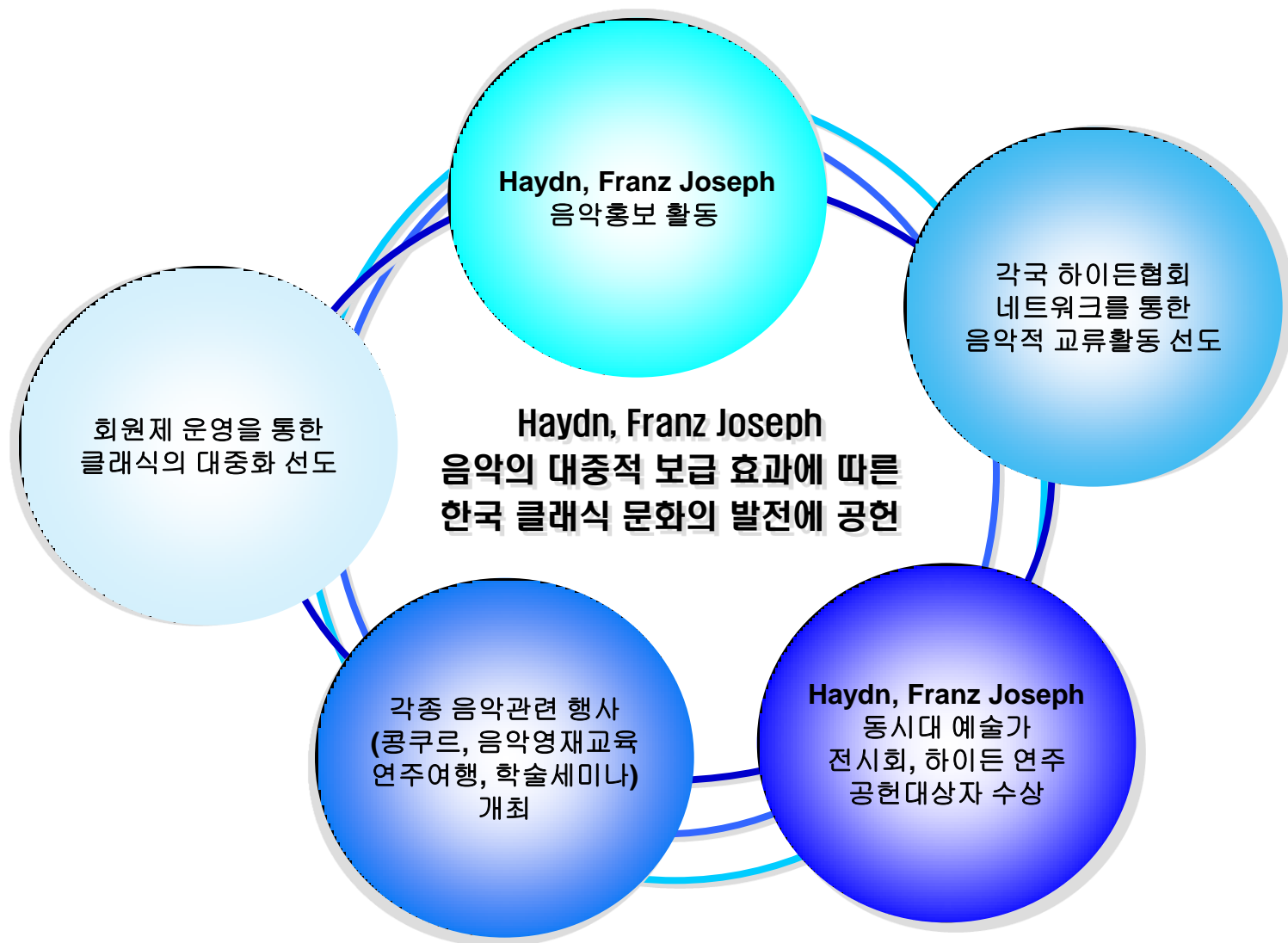
307# Samwon Bldg, 1431-10, Seocho 1-dong, Seocho-gu, Seoul, South Korea (137-885)  
 Tel. +82.2.521.8921 / Fax. +82.2.6280.7740 / E-mail. office@haydnsociety.org  
 Copyright (C) 2002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02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All Right Reserved

www.haydnsociety.org



## 2. 협회비전





### 3. 사업영역

-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 주관 음악회
- 국제 하이든 콩쿠르 개최 (주관 :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 예술영재를 위한 예비교육 사업 (주관 :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 세계 유명 연주자 초청 연주회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와 연주회 교류
-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초청 연주 (년 2회)
- 하이든 및 동시대 작곡과 관련 프로그램 Master Class 주최 및 연주회 개최
- 국내·외 각종 문화교류 사업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5]

Gustav Klimt  
Egon Schiele

**GUSTAV KLIMT & Egon SCHIELE**  
양코르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전시장소 Gallery U.H.M.  
전시기간 2015. 4. 9(목) ~ 6. 25(목)  
오전 10:00 ~ 오후 20:00 | 입장마감 오후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전화 TEL. 02-6677-5767 FAX. 02-6677-5768

2015. 4.9(목)~6.25(목)  
Gallery U.H.M.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Gallery U.H.M. 협찬 | WIEN 후원 |

- Gustav Klimt & Egon Schiele 양코르전시
- 일자 : 2015. 04. 09.
- 장소 : Gallery U.H.M.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Gallery U.H.M.
- 후원 및 협찬 : 비엔나 하이든협회, MAXFIX, TWIN

INVITATION

양코르  
**Gustav Klimt  
Egon Schiele**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Gallery U.H.M. 개관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공동주최인  
「구스타프 클림트 & 에곤 실레 레플리카 名畫展」

“Gallery U.H.M.은 2015년 4월 9일(목) 오프닝 VIP 초대전시에  
Gallery U.H.M. 오전 11시~14시 귀하를 초청합니다.”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dress. 서울시 용산구 두립바위로 60길 49(후암동) Gallery U.H.M. 4층  
Tel. 02-6677-5767 Fax. 02-6677-5768

한국하이든문화재단 대표 변 주 영

\*레플리카란?  
원작의 배손을 막고,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원작과 동일한 재료, 방법, 기술을 통해 만든 복제품을 말합니다.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Gallery U.H.M. 협찬 | WIEN TWIN 후원 |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5]

I N V I T A T I O N

Encore

# Gustav Klimt Egon Schiele Replica Art Exhibition

Two master of the 20th Golden Age & Expressionism

“Gallery U.H.M. Grand opening celebration”  
Haydn Foundation of Korea & Gallery U.H.M. joint auspices

“53. master pieces of painting reproductions  
VIP invitation by the Gallery U.H.M. of Korea  
to the opening **Thursday April 9th 2015 at 11:00 am~14:00 pm**  
of the Gallery U.H.M. at the Seoul.”

**Address.** Gallery U.H.M. Bldg 4F, Duteopbawi-60gil 49, Yongsan-gu Seoul,  
(the Namsan Ring Road) Rep. of Korea.  
**Tel.** 02-6677-5767 **Fax.** 02-6677-5768

 President. Byun JuYoung

Host | Haydn Foundation of Korea | Gallery U.H.M. | Sponsor | WIEN | TWIN | support | 한국문화재단

Gustav Klimt  
Egon Schiele

**안구르** | 20세기 황금시대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 **황금빛 화가로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인기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 GUSTAV KLIMT  
(1862(오스트리아)~1918)

구스타프 클림트는 수수께끼 같은 화가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한번도 실경한 적이 없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그림이 풍기는 매력은 더욱 돋보이게 된 것일까? 사후 50년 후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해더니 현재부터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손꼽히게 되었다.

◆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천재 화가**

**에곤실레** | EGON SCHIELE  
(1890(오스트리아)~1918)

실레는 초기에 클림트를 연상시키는 그려적적이고 도라이케한 양식을 선보이다 점차 클림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표현주의자로서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담한 관능적 욕망,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며, 화상과 불타는 색인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린 형태로 거칠게 묘사했다.

◆ **Mr. Manfred Thumberger (오스트리아 피간의 큐레이터, 제작자)**

저는 비엔나에 있는 레오폴드 미술관과 작업을 하고 있으며 레오폴드 미술관은 세계에서 에곤실레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예술의 전달 전시 작품 작업은 모든 비엔나의 유수한 미술관들과 개인 소장자의 원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죽음과 삶” 작품은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소유 미술관에서 작품이 다른 장소에서 전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고 다루게 됨으로써, 소유 미술관 큐레이터의 승인을 받는 순간 원본과 일치 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유명한 생명의 나무 시리즈 3편은 백에 그려진 백화입니다. 백화의 전시를 위한 제작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전부터 소실된 작품을 복원과 백화작품의 진식을 위해 300여명의 완벽한 기술적으로 조급의 작품들이 복원 되었습니다.  
다육이 클림트의 작품을 몇 점은 백화 그림과 비엔나 예술 레스터베의 포스터로 제작되어 더욱 유명한 작품과 클림트의 많은 유화작품은 수제작적 기법으로 입체감이 떨어지는 포스터 같은 화풍이 주목할 만 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전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테오비로 60길 49 본관 4층 Gallery U.H.M.

전시기간  
☞ 2015년 4월 9일(목) ~ 2015년 6월 25일(목)  
오전 10:00 ~ 오후 20:00 / 일요일 오후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 Tel : 02-6677-5767 Fax : 02-6677-5768

2015. 4.9 (목) ~ 6.25 (목) | Gallery U.H.M.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Gustav Klimt Egon Schiele**

부산일보사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  
 KNN TRIN MAXFIX

부산시민공원 개장 특별일인가  
 www.haydnsociety.org

기간: 2014. 07. 19(토)~09. 14(일)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 레플리카? 원작의 복손을 막고,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원작과 동일한 재료, 방법, 기술을 통해 만든 복제품을 말합니다.

- Gustav Klimt & Egon Schiele 부산전시
- 일자 : 2014. 07. 19.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현대예술관, 울산MBC
- 후원 및 협찬 : 비엔나 하이든협회, MAXFIX, TWIN

### 부산 경남방송 KNN ... 더보기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 ■ Gustav Klimt & Egon Schiele 부산전시 보도자료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 Gustav Klimt & Egon Schiele 울산전시
- 일자 : 2014. 03. 13.
- 장소 : 현대예술관 미술관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현대예술관, 울산MBC
- 후원 및 협찬 : 비엔나 하이든협회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20세기 황금색채의 거장 레플리카 名畫展

# Gustav Klimt Egon Schiele

YTN Creative Directors Group TRIN ASIANA AIRLINES MARCO'S SITEREPKOPK



01.18(토)~03.10(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버티만스튜디오 丙)  
Haydn Schloss Capelle 오케스트라 연주회 2014.3.11 PM 8:00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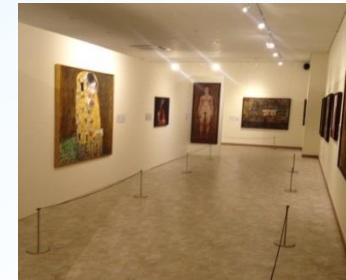
■ Gustav Klimt & Egon Schiele 展

■ 일자 : 2014. 01. 18.

■ 장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YTN

■ 후원 및 협찬 : 비엔나 하이든협회, ASIANA AIRLINES, MAXFIX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 ■ Gustav Klimt & Egon Schiele 예술의전당 전시 보도자료 (YTN)



2014년 1월 18일(토)~3월 10일(월)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예 매: 인터파크 INT 1544-1555

주 최: YTN

주 관: Creative Directors Group

협 찬: TWIN, ADANA AIRLINE, JIN MALL GROUP, 후 원: YTN, MAXF+X, YTN SCIENCE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4]

### ■ Gustav Klimt & Egon Schiele 예술의전당 전시 보도자료(YTN)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3]

2013'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  
국제 하이든 콩쿠르



*Joseph Haydn*

■ 대회일시 : 2013. 8. 14 (수) 오전 9시 (예선 / 본선)  
2013. 8. 23 (금) 오후 7시 Final Concert (각부문 대상, 바로크 챔버홀 연주)

■ 장 소 : 서울바로크챔버홀 (<http://www.kochall.kr>)

■ 참가자격 : 국내, 외, 중, 고(재수생 포함), 대학, 대학원 재학생, 일반

■ 장려부문  
국악부분  
현악부(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더블베이스)  
목관부(플루트 / 오보에 / 클라리넷 / 호른)  
금관부(트럼펫 / 트럼بون / 팀파니 / 타악기 / 쳄발로)  
\* 참가대상 : 초·중 / 2 / 3 / 4 / 5 / 6학년 / 중·고등부 / 대학 일반부

실내악부(현악(현악 String Piano Trio / String Quartet)  
실내악부(목관 Quintet / Quartet / Sextet)  
\* 참가대상 : 고등부 / 대학 일반부

장악기로 \* 참가대상 : 중·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참가조건  
\* 최우수부문, 장려부문, 장려부문 10명(이하 자유곡 예선 / 본선 포함)에도 무량(무)  
- 실내악부  
\* 예선곡 : Joseph Haydn 또는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 본선곡 : Joseph Haydn Op. 114-121 또는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 자유곡 : String Quartet - Joseph Haydn Op. 10, 75-83 Op. 103 또는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 간, 예선곡 및 본선곡  
- 장악부  
\* 예선곡 : 1곡 (비올라가 부류 또는 목관) :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2곡 :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또는 제1차 현악 4중주 또는 모차르트 제1차 현악 4중주  
\* 간, 최우수 부문, 장려 부문

■ 유의사항 : 모든 곡은 함부로 연주 해아 하며 연주하는 분만이 흥반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하이든협회 공식 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를 참고하세요.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하이든협회([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  
■ 후원 : 오스트리아 하이든 쉴로스 카펠레 (Haydn Schloss Capelle)  
비엔나 하이든협회 (Haydn Gesellschaft in Wien)  
바르고 깨끗하고 냄새나지않는 맥스릭스 임플란트 MAXFX IMPLANT

- 2013' 국제하이든콩쿠르
- 일자 : 2013. 08. 14.
- 참가부문 : 피아노, 현악, 목관, 금관, 성악, 실내악
- 장소 : 서울바로크챔버홀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하이든협회
- 후원 : 오스트리아 하이든 쉴로스 카펠레  
비엔나 하이든협회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2]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 문화재단

Joseph Haydn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초청 연주회"



지휘 이대욱 ▪ Violin 성현경 ▪ Viola 김은진

#### Program

Joseph Haydn : Symphonie Nr.3 G-Dur  
W.A. Mozart: Symphonie Concertante Es-Dur Kv 364  
for Violin, Viola and Orchestra  
Intermission  
W.A. Mozart: Symphonie A-Dur Kv 201

일시: 2012.12. 2 (일) 5:00 pm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R석-50,000원 / S석-20,000원 / A석-10,000원



주최: 한국 하이든 문화재단  
주관: 한국하이든협회, 지음기획  
후원: 오스트리아 외무부,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 2012. 12. 02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 지휘 : 이대욱
- 후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 오스트리아 외무부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11]

2011'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  
**국제 하이든 콩쿠르**



*Joseph Haydn*

■ 대회일시 : 2011. 12. 18 (일) (예선/본선)  
■ 장 소 : 덕원예술고등학교(<https://www.dwarts.hs.kr/>)

■ 참가자격 : 국내·외 초, 중, 고(재수생 포함), 대학, 대학원 재학생, 일반

■ 연주부별  
피아노부  
현악부(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더블베이스)  
관악부(플루트 / 오보에 / 클라리넷 / 색소폰)  
리더부(중성 / 남성 / 여성)  
\* 참가대상 : 초창기 1, 2, 3 / 4 / 5 / 6학년 / 중학부 / 고학부 / 대학 일반부

실내악부(현악(현악 String Piano Trio / String Quartet)  
실내악(목관 Quintet / Quartet / Sextet)  
\* 참가대상 : 중학부 / 고학부 / 대학 일반부

향악부  
\* 참가대상 : 중학부 / 고학부 / 대학부 / 일반부

■ 참가곡  
- 피아노부 : 현악부, 관악부, 실내악(목관, 관악부)의 참가곡은  
현악(현악 실내악) / 본선곡 : 작곡과 다른 10분 이내 자유곡  
- 실내악부(현악)  
현악 : Joseph Haydn 또는 하이든의 4중주 또는  
현악 : Joseph Haydn Joseph Haydn IC 100 No. 18-33 또는 하이든의 4중주 또는  
현악 - String Quartet  
Joseph Haydn Op. 10, 75-83 Op. 103 또는 하이든의 4중주 또는  
\* 현악 4중주 또는 4중주

- 향악부  
현악 : 전통악기 4중 또는 5중 또는 전통악기 4중 또는 5중  
현악 : 전통악기 4중 또는 5중 또는 전통악기 4중 또는 5중

■ 대상구분 : 전체 참가대상 1명  
피아노부 : 현악부(현악)의 참가대상 1, 2, 3명  
현악부 : 현악부(현악)의 참가대상 1, 2, 3명  
관악부 : 관악부(관악)의 참가대상 1, 2, 3명  
리더부 : 리더부(리더)의 참가대상 1, 2, 3명  
실내악부(현악) : 실내악부(현악)의 참가대상 1, 2, 3명  
실내악부(목관) : 실내악부(목관)의 참가대상 1, 2, 3명  
향악부 : 향악부(향악)의 참가대상 1, 2, 3명

■ 예 선 : 전체 참가대상 1명  
(전체 참가대상 10명 이내에서 1명 선정, 당일 1명)  
본선 : 참가대상 10명 이내에서 1명 선정, 당일 1명

■ 참가시장 : 초청부(본선)의 참가, 중학부, 고학부, 본선의 당일 시상

■ 상 시 : 최고의 심사위원 1명 구성

■ 상 가 비 : (초학부 10만원) / 피아노, 현악, 목관, 관악, 향악 15만원 / 실내악 20만원

■ 참가신청 : 한국하이든협회([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 다운로드  
접수기간 : 2011. 12. 18 (일) 까지  
- 2011. 12. 18 ~ 17 시까지 시간당 100명씩 접수(현장 접수)하며  
신청서류 : 02-521-8921 / Fax: 02-6280-7740

■ 유의사항 : 모든 관련 정보는 연주 해에 맞추는 본인이 출판 / 자세한 문의는 한국하이든협회 공식 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를 참고하세요.

■ 주 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하이든협회([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  
■ 후 원 :  비엔나시  덕원예술고등학교

- 2011' 국제하이든콩쿠르
- 일자 : 2011. 12. 18.
- 참가부문 : 피아노, 현악, 목관, 금관, 성악, 실내악
- 장소 : 덕원예술고등학교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9]

**Dr. Rudolf Streicher**와 함께하는  
덕원 Young artists Concert

S. Rachmaninoff · F. Poulenc · T. Matiel · Ch. Gounod · G. Verdi  
W. A. Mozart · M. Bruch · E. Elgar · J. Strauss · 이장희

2009. 10. 11. (일) 오후 3: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덕원예술고등학교  
주관: 한국하이든협회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후원: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세계문화재단

티켓 - 공연문의: 자원기획 02-2965-9235

- 2009 10. 11.
- Dr. Rudolf Streicher와 함께하는 덕원 Young artists Concert
- 지휘 : Dr. Rudolf Streicher
- 주관 : 한국하이든협회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덕원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Dr. Rudolf Streicher**의 하이든 음악여행

W.A. Mozart  
- Overture : Figaro Hochzeit  
- Aria der Susanna-Rosenarie

J. Haydn  
- Violin concerto in C-Dur No. 1  
- Symphonie G-Dur Hob. 1-94 "Mit dem Plüschenschlag"

J. Strauss  
- Wiener Blut  
- An der schoene Donau walzer

Father of J. Strauss  
- Radetzky Marsch

2009. 10. 11. (일)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덕원예술고등학교  
주관: City of Vienna, 한국하이든협회  
후원: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세계문화재단

티켓에: 1554-1555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자원기획 02-2965-9235

- 2009 10. 11.
- 덕원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Dr. Rudolf Streicher의 하이든 음악여행
- 지휘 : Dr. Rudolf Streicher
- 주관 : 한국하이든협회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9]

### 2009'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 국제 하이든 콩쿠르



*Joseph Haydn*<sup>®</sup>

- 대회일시 : 예선 2009. 6. 13 (토) / 본선 2009. 6. 14 (일)
- 장 소 : 덕원예술고등학교(www.dwarts.hs.kr)
- 참가지역 : 국내 · 외 초, 중, 고(재수생 포함), 대학, 대학원 재학생, 일반
- 경연부문 : 피아노부문, 현악부문, 목관부문, 금관부문, 실내악부문, 성악부문  
(예선, 본선 Joseph Haydn 또는 자유곡 중 택일)  
\* 성악 - 이탈리아, 독일 가곡 또는 아리아 1곡을 택함
- 시 상 : 전체 최우수대상 1명 / 하이든 특별상 1명  
피아노부문 전체대상 1명, 초/중/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현악부문 전체대상 1명, 초/중/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목관부문 전체대상 1명, 초/중/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금관부문 전체대상 1명, 초/중/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실내악(현악, 목관, 금관) 전체대상 1명, 초/중/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성악부문 전체대상 1명, 고 / 대학 일반 1, 2, 3등 장려상
- 심사위원 : 모든 곡은 임의로 연주해야 하며 반주는 본인인 일반 / 자세한 콩쿠르 정보는 한국하이든협회 공식 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를 참고하세요.
- 전 : 전체 최우수 대상(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후원상) 1명  
(국제 최우수 대상은 오스트리아 하이든문화재단 연간 특별 하이든 특별상 1명 (Special Interpretation) 상금 100만원)
- 심 사 : 최고의 심사위원단(음대교수)으로 구성
- 참가신청 : 한국하이든협회 공식 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에서 다운로드 및 FAX 송부  
신청마감 : 2009. 6. 10 (수) 까지  
문의사항 : 02-521-8921 / Fax. 02-6280-7740

- 주 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하이든협회(www.haydnsociety.org)
- 주 관 : 오스트리아 하이든문화재단(www.haydnfestival.at)
- 후 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덕원예술고등학교 / 음악저널

- 2009' 국제하이든콩쿠르
- 예선 : 2009. 06. 13.
- 본선 : 2009. 06. 14.
- 참가부문 : 피아노, 현악, 목관, 금관, 성악, 실내악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공동주최 :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
- 참가자격 : 국내외 초, 중, 고, 대학, 일반인
- 후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덕원예술고등학교, 음악저널
- 장소 : 덕원예술고등학교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9]



- 2009. 04. 08
- 하이든 서거 20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기자간담회
- 장소 : 하얏트호텔
- 주최 : 한국하이든문화재단
- 참석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  
국내 주요 언론사 담당기자 20명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9]



- 2009. 03. 16
- 하이든 그림 48점 전시회 및 하이든 과르뎃 연주회 리셉션
- 장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참석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 재한유럽연합대사  
유럽관광청 관계자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9]



- 2009. 03. 05
- 오스트리아 Esterhazy 문화재단 하이든 재단 세미나
- 장소 : 조선흥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참석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 재한유럽연합대사, 유럽관광청 관계자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6~2007]

The 40th Anniversary Concert of  
**Seoul Academy Ensemble**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2006년 6월 8일 (목)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 A. MOZART · F. MENDELSSOHN · P. TCHAIKOVSKY · B. BARTÓK

지휘 최승한 · 피아노 이경숙 · 바이올린 김남윤 · 첼로 최정은

지금 공지사항에 가셔서  
공연 내용을 읽어 보시고  
무료티켓을 신청하세요.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획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한국하이든협회, 스프라드악기, 사현악기  
연주문의 : 02) 2265-9235 • 회원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예매티켓링크 : 전화예매 Tel: 1588-7890, 인터넷 예매 www.ticketlink.co.kr

- 2006 06. 08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 지휘 : 최승한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07년 11월 24일 / 12월 01일 / 12월 07일 / 12월 15일
- 한국하이든협회와 함께하는 코레일 오픈콘서트 정기음악회
- 연주 : 덕원예술고등학교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코레일
- 장소 : 서울역 코레일 오픈 콘서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4]

제60회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




지휘 Conductor  
베른트 그라드wohl Bernd Gradwohl



플루티스트 Flutist  
막 그로벨스 Marc Grauvels

### 플루티스트 Marc Grauvels 초청공연

Joseph Haydn	Symphonie Nr. 24, D-Dur	
Louis Spohr	Concerto in a op.131 for string quartet and orchestra	
W.A. Mozart	Symphonie Nr. 29, A-Dur kv201	
Francois Devienne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er Nr. 7, e-moll	

2004년 12월 5일(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 최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한국하이든협회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주 관 : 예술기회 문화재단  
주 원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연문의 : 예술기회 문화재단 (02)3487-2096 • 티켓 문의 : R 30,000 / S 20,000 / A 20,000 / B 10,000  
\*예매처 : 티켓링크 1588-7800 (www.ticketlink.co.kr) / 티켓파크 1588-1555 (ticket.interpark.com)



- 2004 12. 05
- 플루티스트 Marc Grauvels 초청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후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한벨기에대사관
- 장소 : 예술의전당



- 2004 12. 05
- 플루티스트 Marc Grauvels 초청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후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한벨기에대사관
- 장소 : 예술의전당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4. 06 ~ 10]

Seoul Academy Ensemble 59th Regular Concert

제 59회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정기연주회

2004년 6월 17일(목) PM 7:30 | 영산아트홀

지휘 / 최승용   첼로 / 이종영   바이올린 / 한영주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회  
후원 / 서울문화재단, 한국 하이든 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2004. 06. 17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 지휘 : 최승용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영산아트홀

Seoul Academy Ensemble Youth Concert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W. A. Mozart - J. J. Quantz - W. A. Mozart - L. Boccherini

지휘 / 최승용   바이올린 / 정혜윤   첼로 / 이도연   바이올린 / 조한나

Seoul Academy Ensemble

2004년 9월 13일 (월) 오후 7시 30분 | 영산아트홀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회 • 후원 / 한국 하이든 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2004. 09. 13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 지휘 : 최승용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영산아트홀

Seoul Academy Ensemble Youth Concert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W. A. Mozart - J. J. Quantz - W. A. Mozart - L. Boccherini

지휘 / 최승용   바이올린 / 정혜윤   첼로 / 이도연   바이올린 / 조한나   바이올린 / 한현진   첼로 / 김일경

Seoul Academy Ensemble

2004년 10월 27일 (수) 오후 7시 30분 | 영산아트홀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회 • 후원 / 한국 하이든 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2004. 10. 27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 지휘 : 최승용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영산아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3]

Seoul Academy Ensemble 57th Regular Concert

제 57회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정기연주회

W. A. Mozart Overture to the Opera "La Clemenza di Tito" KV 621  
L. v. Beethoven Klavierkonzert Nr.3 e-moll Op.37  
W. A. Mozart Gboe concerto C Major, K.314  
B. Bartók Divertimento

지휘 / 베른트 그라드wohl (Bernd Gradwohl)  
피아노 / 황혜진  
오보에 / 김선연

Seoul Academy Ensemble

2003년 6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영산아트홀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획 • 후원 / 한국 하이든 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공연문의 : 지음기획 02) 2265-9235 ■ 입장권 : 잔액 10,000원  
■ 예매처 / 티켓링크 (Tel: 1588-1555, 인터넷: www.ticketlink.com) ■ 티켓링크 (Tel: 1588-7890, 인터넷: www.ticketlink.co.kr)



- 2003. 06. 17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영산아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3]

한국음악대학합창연합회


제 8회  
**한국음악대학 합창 음악제**

■ 전시회, 세미나, 합창음악제 ■

J. Haydn의 합창음악

■ 세미나 강사  
이성훈 교수

■ 출연대학  
충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주순)



*Joseph Haydn*

2003년 5월 17일(토)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오후 12시~저녁 9시(전시회), 오후 2시~4시(세미나), 저녁 7시~9시(연주)

주최/ 한국음악대학합창연합회  
주관/ 한국합창학회  
후원/ 한국 하이든협회



- 2003. 05. 17
- 한국음악대학 합창음악제
- HAYDN DOCUMENT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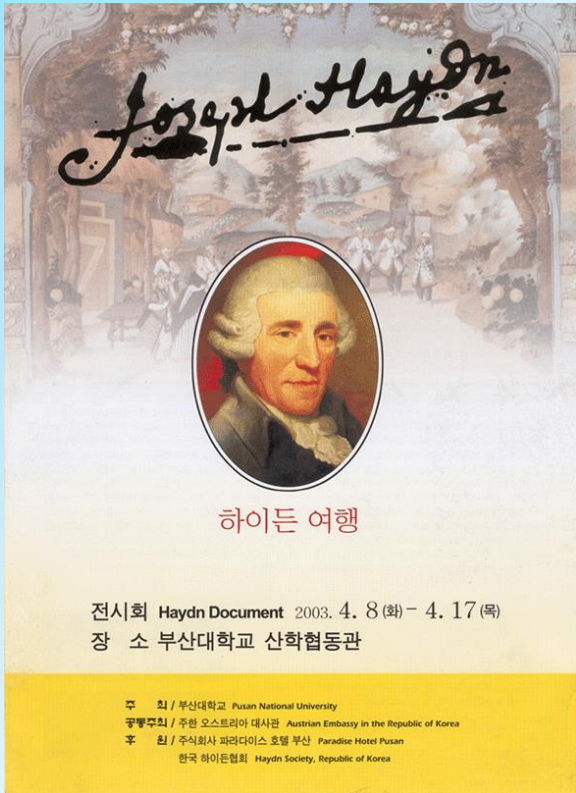


- 2003. 05. 17
- 한국음악대학 합창음악제
- HAYDN DOCUMENT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3]



- 2003. 04. 08 ~ 17
- HAYDN DOCUMENT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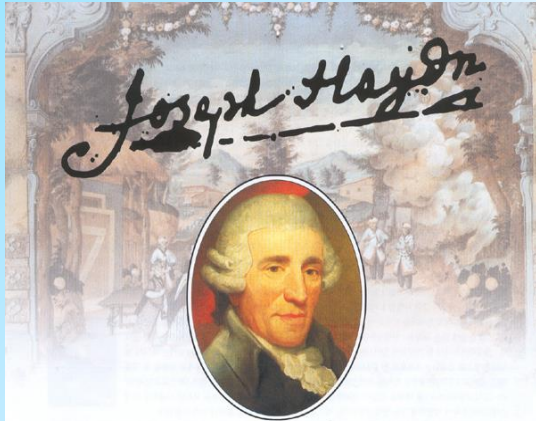


- 2003. 04. 18 ~ 24
- HAYDN DOCUMENT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부산예술고등학교 일신갤러리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1 국내 [2003]



#### 하이든 여행

전시회 Haydn Document 2003. 3. 3 (월) - 3. 29 (토)

연주회 Haydn-Gala 2003. 3. 28 (금) 오후 5:00

3 Scottish songs - Up in the morning early  
The wee, wee man  
Morag

String Quartet Nr. 77 in G Major  
Piano Trio in G Major - Rondo all' Ungarese

장 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주 최 / 한국 하이든협회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공명주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l University  
주 침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Austria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후 원 /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 Haydn Society Austria  
협 찬 / 한국마사회 Korea Racing Association  
플래티늄 마이크로 브루어리 PLATINUM Micro brewery  
힐 스트링 HILL-STRING



- 2003. 03. 28.
- THE HAYDN-GALLA 2003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서울대
- 후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장소 : 서울대 음악대 예술관



- 2003. 03. 03 ~ 29
- HAYDN DOCUMENT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서울대
- 후원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장소 : 서울대 음악대 예술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3]

Seoul Academy Ensemble Youth Concert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2003년 3월 13일 (목) 오후 7시 30분 | 영산아트홀

주최 /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 주관 / 지음기획  
후원 / 한국 하이든 협회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공연문의 : 지음기획 02) 2265-9235 \* 입장권 : 회원권 / 5,000원



- 2003. 03. 13.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청소년 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후원 : 한국하이든협회
- 장소 : 영산아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2]

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제56회 정기연주회

SEOUL ACADEMY ENSEMBLE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지휘: 베르드 그라드wohl Bernd Gradwohl  
지휘: 안나 마리아 루보-맥 Anna Maria Lubo-Max

J. Haydn · A. Corelli · F. Schubert

2002. 12. 12 (목) 오후 7:30 영산아트홀  
7:30 PM Thursday December 12, 2002 Young San Art Hall

기획 / 한국 하이든 협회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후원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Austria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기획 / 세실예술기획

■ 회원권 : 10,000원 ■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 공연문의 : 세실예술기획 (02)583-6295 www.cnch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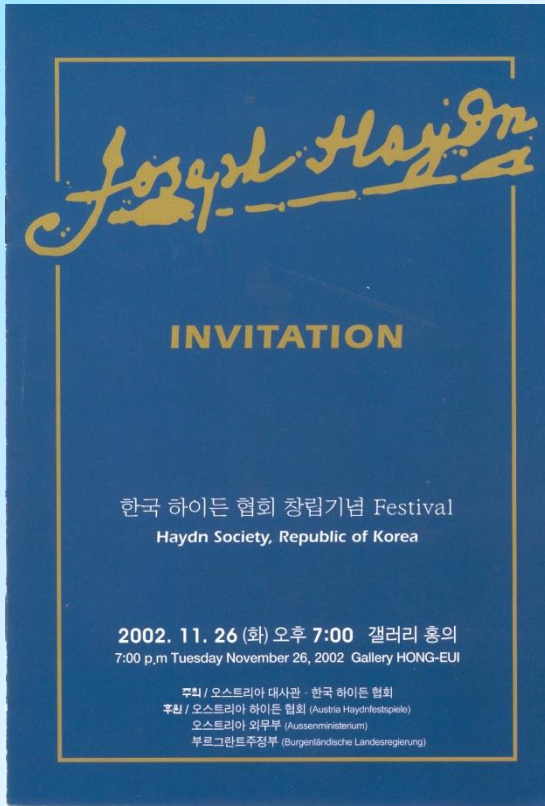


- 2002. 12. 12.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장소 : 영산아트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1 국내 [2002]



- 2002. 11. 26
- 협회창립기념 오스트리아 현대화가 2인전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서초동 갤러리 홍의



- 2002. 11. 26
- 협회창립기념 오스트리아 현대화가 2인전
- 주최 : 한국하이든협회
- 서초동 갤러리 홍의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 2012 AUSTRIA (PALAIS PALFFY)

**10 Jahre Haydn Gesellschaft in Korea**

*Joseph Haydn*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120 Jahre diplomatische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Österreich

JUBILÄUMSKONZERT „SEOUL ACADEMY ENSEMBLE“

7. November 2012 19:00 h  
PALAIS PALFFY  
Josefsplatz 6, 1010 Wien  
DIRIGENT Bernd Gradwohl

PROGRAMM  
Joseph HAYDN: Symphonie Nr. 3 G-Dur  
W.A. MOZART: Symphonie Concertante Es-Dur KV 364  
für Violine, Viola u. Orchester

SOLISTEN  
Violine: Tea-Jung, Lee  
Viola: Young-Jung, Kim  
Pause




W.A. MOZART: Symphonie A-Dur KV 201

Freie Eintritts Spende  
Veranstalter: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2012. 11. 07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후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 오스트리아 외무부.
- 장소 : PALAIS PALFFY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12 AUSTRIA (Erlöserkirche "AM SCHÜTTEL")

**10 Jahre Haydn Gesellschaft in Korea**

*Joseph Haydn*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120 Jahre diplomatische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Österreich

JUBILÄUMSKONZERT „SEOUL ACADEMY ENSEMBLE“

6. November 2012 19:00 h  
Erlöserkirche „AM SCHÜTTEL“  
Rustenschacherallee 14, 1020 Wien

DIRIGENT Bernd Gradwohl


PROGRAMM  
Joseph HAYDN: Symphonie Nr. 3 G-Dur  
W.A. MOZART: Symphonie Concertante Es-Dur KV 364  
für Violine, Viola u. Orchester

SOLISTEN  
Violine: Tea-Jung, Lee  
Viola: Young-Jung, Kim  
Pause

W.A. MOZART: Symphonie A-Dur KV 201

Freie Eintritt Spende

Veranstalter: 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



- 2012. 11. 06
-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하이든문화재단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후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 오스트리아 외무부
- 장소 : Erlöserkirche "AM SCHÜTTEL"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10 AUSTRIA (Eisenstadt)

**HAYDN SOCIETY KOREA**

---

**PREISTRÄGER-KONZERT**

Mittwoch, 2. Juni 2010, 19.30 Uhr  
Schloss Esterházy, Empiresaal

*Joseph Haydn*

Gewinner des  
Int. Haydn-Wettbewerbs  
2010

Ji-Man Wee, Violine

**N.Paganini:**  
Caprice No. 24 Op.1

**E.Ysaye:**  
Sonata for Violin Solo No.6 Op.27

**E.Chausson:**  
Poeme Op.25

**C.Franck:**  
Sonata in A major

Sonderkonzerte  
2010

Haydn Society Korea  
c/o Haydn Festspiele Eisenstadt  
Schloss Esterházy  
7000 Eisenstadt  
T: 02682 61866  
office@haydnfestival.at  
tickets.haydnfestival.at

Schloss  
Esterházy

*Joseph Haydn*

www.haydnfestival.at



- 2010. 06. 02
- 2010' 국제하이든콩쿠르 전체 최우수대상 수상자 기념연주
- 연주 : 위지만
- AUSTRIA Eisenstadt Schloss Esterhazy Empiresaal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10 AUSTRIA (Eisenstadt)



- 2010. 06. 02
- 모차르트 공원 유치 기자회견 및 리셉션
- AUSTRIA EISENSTADT ESTERHAZ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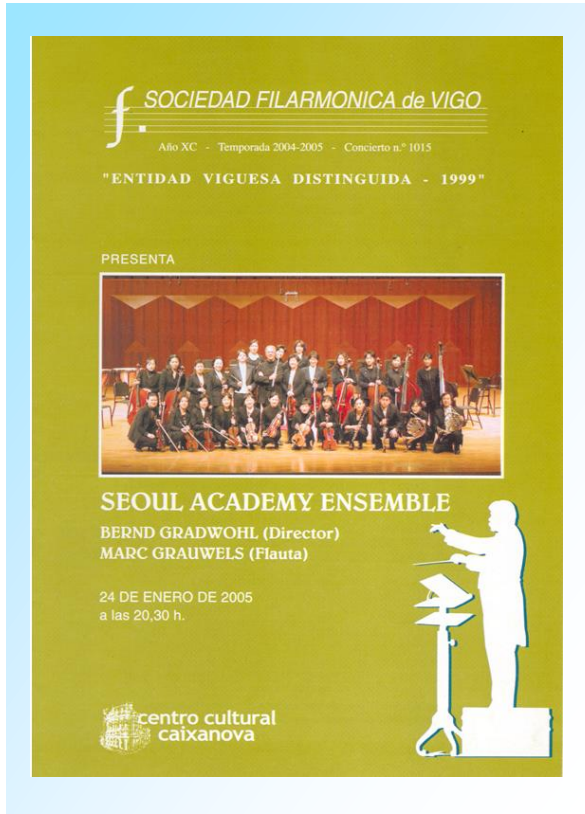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05 SPAIN (Vi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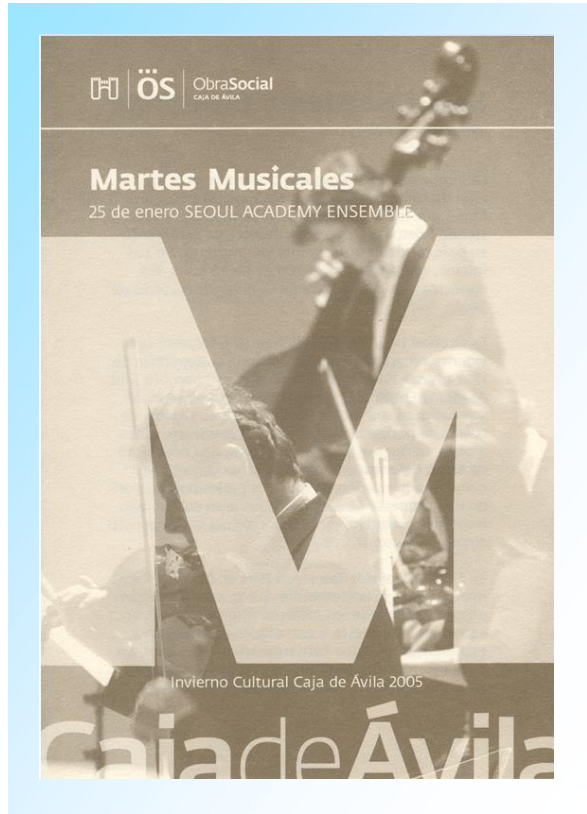


- 2005. 01. 24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VIGO  
- CENTRO CULTURAL CAIXANOVA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2 해외- 2005 SPAIN (Avilla)



- 2005. 01. 25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AVILLA  
- OBRASOCIAL CAJA DE AV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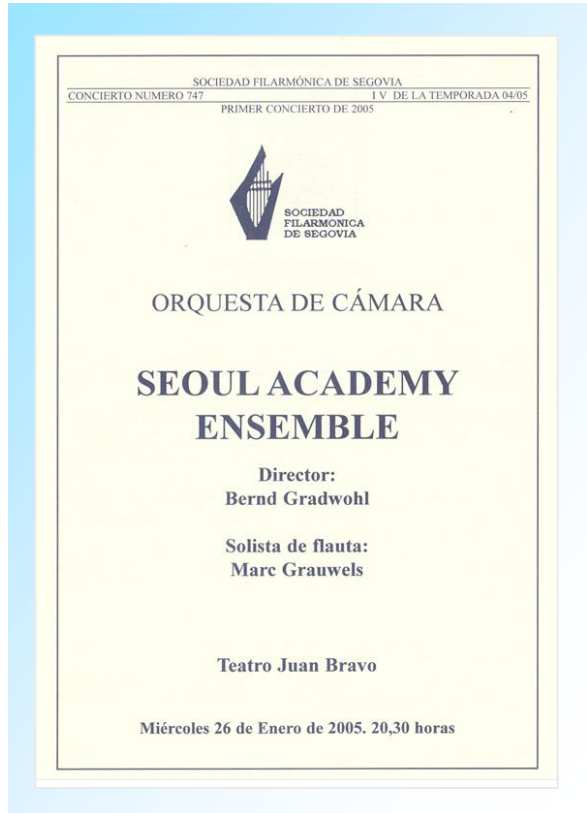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05 SPAIN (Segovia)



- 2005. 01. 26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SEGOVIA  
- TEATRO JUAN BRAVO Plaza Mayor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2005 SPAIN (Burgos)



- 2005. 01. 28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BURGOS  
- SALON TEATRO DEL CIRCULO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2 해외- 2005 SPAIN (Miranda)

ATENEU MUSICAL  
MIRANDES

**SEOUL ACADEMY ENSEMBLE**

DIRECTOR: **Bernd Gradwohl**

SOLISTA: **Marc Grauwels, FLAUTA**

PATROCINA: *Asfibusa*

TEMPORADA 2004-2005 - CONCIERTO 8.º - AÑO XXVI - CONCIERTO 367

**CENTRO CULTURAL CAJA DE BURGOS**

**SABADO, 29 DE ENERO DE 2005 - 20,15 H.**



- 2005. 01. 29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MIRANDA  
- CENTRO CULTURAL CAJA DE BURGOS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2 해외- 2005 SPAIN (Cartagena)



- 2005. 01. 31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CARTAGENA  
- UNIVERSIDAD POLITECNICA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 해외- 2005 SPAIN (Tarragona)

C I C L E D ' H I V E R N  
P R O G R A M A

I

Simfonia 24 en re major Hob: I:103 E. J. HAYDN  
Allegro  
Andante  
Menuet  
Finale (presto)

Concert núm. 7 en mi menor per a flauta i orquestra F. DEVIENNE  
Allegro  
Adagio  
Rondo

II

Simfonia núm. 29 en la major K 201 W. A. MOZART  
Allegro  
Andante  
Menuetto  
Allegro assai

Morceau de concours per a flauta i orquestra G. FAURÉ

Fantasia op. 79 per a flauta i orquestra G. FAURÉ

Le Merle Blanc, polka fantasia op. 161 per a piccolo i orquestra E. DAMARÉ

SEOUL ACADEMY ENSEMBLE  
Director: Bernd Gradwohl  
Solista: Marc Grauvels, flauta

*Dimarts, 1 de febrer de 2005*  
*A les 20 hores* *Teatre Metropol*

Any XIII  
Activitat 2.077 Curs 2004/2005  
Concert X



- 2005. 02. 01
- 2005 한국하이든협회 스페인 초청 투어공연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SPAIN TARRAGONA  
- TEATRO METROPOL RAMBLA NOVA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2 해외 - 2004 AUSTRIA (Eisenstadt)



- 2004. 05. 29
- 오스트리아 NCC 하이든홀 콘서트
- 지휘 : Bernd Gradwohl
- 작곡: 이신우
- 연주: 클라리네티스트 김현곤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홀



- 2004. 05. 29
- 오스트리아 NCC 하이든홀 콘서트
- 지휘 : Bernd Gradwohl
- 작곡: 이신우
- 연주: 클라리네티스트 김현곤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02

해외 - 2002 AUSTRIA (Eisenstadt)

**HAYDN FESTSPIELE**  
Eisenstadt, Austria

**FESTKONZERT**  
anlässlich der Gründung der  
**Haydn Gesellschaft Korea**

Mi. 12. Juni 2002, 19.30 Uhr  
Schloss Esterházy Eisenstadt  
Haydn Saal

**Seoul Academy Ensemble**

J. Haydn: Symphonie D-Dur Nr. 24  
J. Haydn: Cellokonzert D-Dur

\*\*\*  
W.A. Mozart: Adagio und Fuge c-moll KV 546  
F. Devienne: Flötenkonzert Nr. 7 e-moll

**Leitung:**  
**Kim Bong**  
und  
**Bernd Gradwohl**

Ticket Preis: € 18,- (freie Platzwahl)

Tickets und Information:  
Büro der Haydn Festspiele  
Schloss Esterházy 7000 Eisenstadt  
Tel: 02652/ 61669, Fax: 61605



- 2002. 06. 12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연주회
- 지휘 : Bernd Gradwohl
- 연주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홀



## 4. 행사 및 공연현황

### 02 해외 - 2002 AUSTRIA (Eisenstadt)



- 2002. 06. 07
- 한국하이든협회 설립 협약식
-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
- 하이든본부 대표 L.r Helmut Bieler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 문화재단 본부



- 2002. 06. 07
- 한국하이든협회 설립 협약식
- 한국하이든협회 고문 Bernd Gradwohl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  
Artistic Director Walter Reicher  
하이든본부 대표 L.r Helmut Bieler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 문화재단 본부



- 2002. 06. 07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기자회견
-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
-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 문화재단 본부





## 5. 보도자료

01

### 국내언론

2012-10-23 16:41

#### Haydn Society bridges Korea, Austria

By Do Je-hae

This year marks 12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the homeland of iconic musicians in classical music.

The Haydn Society Korea will organize two concerts in Vienna on Nov. 6-7 to celebrate the landmark year of Korea-Austria relations as well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society.

The program is Haydn's Symphony No. 3; Mozart's Symphonie Concertante for violin and viola; and Mozart's Symphony No. 29 by the Seoul Academy Ensemble led by Bernd Gradwohl. The ensemble has carried out various overseas tours, such as the concert in 10 cities at the official invitation of Spain in 2005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pain.

A press conference for the concert will be held in Vienna on Oct. 30. "The Aust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ustrian Embassy in Korea have recognized the concerts as part of official events marking the 120th year of bilateral relations," Byun Ju-young, president of the society said.

The Haydn Society Korea organizes a variety of concerts here and abroad, with a focus on promoting Haydn and his contemporaries. The society also organizes the annual international Haydn competition to find musical talents and the winners are given the opportunities to perform in Austria. At the end of December, another international Haydn competition will be held.

Byun was recently named president of Haydn Schloss Kapelle, an orchestra in Vienna.

"I will continue to work as a cultural linkage between Korea and Austria as president of the orchestra," Byun said.

Byun is a professional musician, having studied the double bass in Austria. She founded the society in 2002 since obtaining a diploma from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 under professor Streicher following graduation from Yonsei University in 1988.

jhdo@koreatimes.co.kr,



Byun Ju-young, president of the Haydn Society Korea



- 보도일자 : 2012. 10. 23
- 창립10주년 한국하이든문화재단 &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 코리아타임즈 THE KOREA TIMES



## 5. 보도자료

01

### 국내언론

#### 한국하이든협회

#### 2010' International J. Haydn(Chamber) Competition

2월 17일 서울예술고등학교서  
'국제하이든콩쿠르' 개최 예정  
수준 높은 무대와 다채로운 특전으로 눈길



■ 보도일자 : 2010. 01. 05

■ 음악교육신문

지난 2009년은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란츠 요제 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 · 1732~1809)의 서거 200 주기를 기념하는 해였다. 국내외 음악계는 연초부터 하이든을 기리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으며, 관련 공연 또한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뤘다. 세계 곳곳에서 유수 단체가 주관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연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음악계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한국하이든협회(회장 변미정)의 행보였다. 2009년 상반기 에스테르하지 문화재단의 '하이든 세미나'를 비롯해 '하이든 그림전시회', '2009' 국제하이든콩쿠르(2009' International J. Haydn(Chamber) Competition)' 등 굵직한 행사들을 차례로 유치했던 한국하이든협회는 하반기 현 비엔나심포니오케스트라 사장 루돌프 스트라이허(Dr.Rudolf Streicher)의 지휘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하이든 음악여행' 콘서트(10월)를 성황리에 마치며 하이든 문화재단 한국지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특히, 비엔나 시(市)와 한국하이든협회가 공동주관한 '하이든 음악여행' 무대는 공연 전 3천여석의 객석이 전석 매진 됐으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요세프 뮐러너(Dr.J.Mullner)를 비롯한 유럽대사와 국내 귀빈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공연에 함께한 덕원예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자들은 좋은 연주를 선보였으며 2부에서는 이번 콘서트에 대한 답례로 소프라노 마르첼라 체르노(Marcela Cerno)가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국내 언론사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국하이든협회는 지난 2002년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과 조인식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발족된 단체는 한국하이든협회가 유일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온 한국하이든협회는 현재 하이든 작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비롯해 음악 홍보활동과 각국 하이든 협회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교류활동, 콩쿠르 및 각종 학술세미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최된 이래 수준 높은 무대와 다채로운 특전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국제하이든콩쿠르(International J. Haydn(Chamber) Competition)는 2010년도 대회를 오는 2월 17일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이 후원하고 오스트리아 하이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참가대상은 국내외 초, 중, 고(재수생 포함),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경연부문은 피아노, 현악(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 목관(플루트/오보에/클라리넷/바순), 금관(호른/트럼펫/트롬본/튜바), 실내악(StringPianoTrio/StringQuartet/목·금관 Quartet/Quintet/Sixtet) 등이다.

국내외 유명 연주자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함께하는 이번 콩쿠르는 전체 최우수 대상(1명)에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에서 열리는 협연 무대를 제공(항공권 제공)하고, 현악 실내악 입상자(피아노 트리오와 현악 사중주에 해당됨)에게는 지원자에 한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제5회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음악학도들을 위한 다양한 특전으로 눈길을 모은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지난해 10월 '하이든 음악여행' 콘서트의 공동주관자이자 비엔나 시 전권특사로 내한한 발터 네티티(Senator.Walter Nettig)의 초청으로 2009~2010년 전체 최우수 대상자들과 신진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비엔나 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콘서트의 지휘는 루돌프 스트라이허(Dr. Rudolf Streicher)가 맡는다. 향후 비엔나 시에서는 오스트리아문화재단의후원으로 2년마다 국제하이든콩쿠르 우승자들의 연주무대가 이뤄진다.

원서교부는 한국하이든협회 공식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에서 다운로드 및 FAX 배부가 가능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오는 2월 12일 도착분에 한해서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콩쿠르 정보는 한국하이든협회 공식 웹사이트([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를 참고하면 된다.

음악교육신문 / (전지현 기자)





## 5. 보도자료

01

### 국내 언론

음악저널
Vol.233 www.musicjournal.co.kr 2009. 05

# the Journal of Music

**COVER STORY**  
음악의 민간외교관  
“한국하이든협회” 회장 변미정

음악의 민간외교관 ‘한국하이든협회’ 회장 변미정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하이든계의 대표 인물인 변미정 회장이 2009년 5월 1일 서울에서 하이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기 보 서

## 음악의 민간외교관 “한국하이든협회” 회장 변미정

**하이든협회 창립식 특파원 특보**

한도 하이든 협회는 유럽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초의 스토리타(Haydn Society)로써 제1회 창립식(2009년 5월 1일)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날이었다. 스토리타는 ‘우리’라는 뜻을 지닌 영어 표현이다. 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될 것이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의’라는 스토리타가 낳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든 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 뿐만 아니라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넘어 한국 하이든계와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 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 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 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의 제1차 정기총회**

하이든협회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하이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순치회 하이든협회 제1회 창립식 특보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의 제1차 정기총회**

하이든협회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하이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의 제1차 정기총회**

하이든협회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하이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의 제1차 정기총회**

하이든협회는 2009년 5월 1일 서울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하이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교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 5. 보도자료

### 01 국내언론

Feature

# 하이든의 음악을 이어가다

## 한국 하이든 협회



**하이든의 음악을 이어가다**  
한국 하이든 협회

**한국하이든협회는** 2002년 6월 7일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제프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겐슈테르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과의 조인식으로 설립된 단체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다.

하이든은 사랑받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실로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활발히 연주되고 있지만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고,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 및 개발과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와 같은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하이든 작품연주에 공헌한 음악가나 앙상블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 이름이 나오고 있다.

하이든 음악 홍보활동, 각국의 하이든협회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교류활동 및 콩쿠르, 마스터클래스, 학술 세미나 등 음악영역 밖 활동 등으로 그의 작은 활동을 이어 설립 8년째에 걸친 하이든 협회에서 지난 2009년을 앞둔 2009년 4월 13-14일 개최되는 2009 국제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콩쿠르를 후원하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박정음 주무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김진경 예술감독도 참석했다.

**2009 International Joseph Haydn Competition**  
이 대회는 오스트리아 하이든 음악재단과 비엔나 국립대학이 주관으로 열리는 '제4회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의 한국 대표로, 올해는 4월 15일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하이든홀을 시작으로 4월 23일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의 모차르트홀에서 3차 경연이 치러진다. 4월 24일에는 하이든 협회대행자를 쓰는 실례한데연으로, 에스페라르치 궁전외 소개


**2009년 오스트리아 하이든 문화재단과의 조인식에서 변희만 대표와 오스카리아 협회 관계자들**

- 보도일자 : 2009. 05. 01
- 하이든의 음악을 이어가다
- The Strad Korea

국제 하이든 콩쿠르 요약

일시: 매년 4월 15일 / 본선 4월 16일  
장소: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장기작: 라파엘 요-후그,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관현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브람스, 말러, 쇠니에, 프랑크, 비야리, 비탈리, 쇼스타코비치, 리스, 말러,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브람스, 말러, 쇠니에, 프랑크, 비야리, 비탈리, 쇼스타코비치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트롬폰, 트럼펫,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트롬폰, 트럼펫,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색소폰

특이: 5년째 하이든 협회 오스카리아 하이든홀에서 열린 제4회 하이든 협회콩쿠르 2009년  
장기작: 라파엘 요-후그,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관현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브람스, 말러, 쇠니에, 프랑크, 비야리, 비탈리, 쇼스타코비치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트롬폰, 트럼펫,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색소폰



한 아이겐슈테르에 본지를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할카의 출신의 실례한 데연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매년 열리는 하이든 페스티벌에서의 연주를 위해 1987년 결성되었으며 하이든 음악의 퍼포먼스는 관현악, 용어들을 전담, 젊은 층을 위해 매년 소개한다.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하이든홀에서 하이든 협회 오스카리아 하이든홀에서 열린 제4회 하이든 협회콩쿠르 2009년 4월 15일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하이든홀에서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오스트리아 하이든 음악재단과 비엔나 국립대학이 주관으로 열리는 '제4회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의 한국 대표로, 올해는 4월 15일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하이든홀을 시작으로 4월 23일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의 모차르트홀에서 3차 경연이 치러진다. 4월 24일에는 하이든 협회대행자를 쓰는 실례한데연으로, 에스페라르치 궁전외 소개

**2009 International Joseph Haydn Competition**  
이 대회는 오스트리아 하이든 음악재단과 비엔나 국립대학이 주관으로 열리는 '제4회 International Joseph Haydn Chamber Competition'의 한국 대표로, 올해는 4월 15일 비엔나 국립음악원의 하이든홀을 시작으로 4월 23일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의 모차르트홀에서 3차 경연이 치러진다. 4월 24일에는 하이든 협회대행자를 쓰는 실례한데연으로, 에스페라르치 궁전외 소개



# 5. 보도자료

## 01 국내언론



### 코레일 서울역에서 정기음악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1-23 15:50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코레일 내일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 '코레일 오픈 콘서트 홀'에서 정기음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0여분 간 진행되는 정기음악회는 한국하이든협회와 덕원예술고가 협연으로 웨버의 'Andante e Rondo & Ungarese', 김성태의 '동심초' 등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9월부터 여행을 떠나는 고객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서울역에 '코레일 오픈 콘서트홀'을 개관, 운영중이다.

연주를 원하는 고객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이성우 고객지원팀장은 "오픈 콘서트 홀에서 울리는 감미로운 음악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고객의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연주자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min365@yna.co.kr

(끝)

- 보도일자 : 2007. 11. 23
- 코레일 서울역에서 정기음악회
- YTN



코레일 오픈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이성우(왼쪽)와 김성태(오른쪽)가 연주하는 모습. 사진은 김성태가 연주하는 모습이다.

05 | 스포츠동아 2009년 4월 14일 화요일

Entertainment

아트

## "꽃보다 표...구준표 말고 티켓이요!"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 한국하이든협회를 아시나요?

2002년 설립-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정무부 등록 연합까지 정경 계속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달빛의 '전업' 선언 직후가 김준표

- 보도일자 : 2009. 04. 14
- 한국하이든협회를 아시나요?
- 스포츠동아



## 5. 보도자료

01

### 국내 언론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12월 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평 · 탁계석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속성'의 내부엔 의지력과 인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격박한 토양에서의 예술활동 지속성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는 시간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떤 단체이든 오래 운영하는 데는 단체를 융합하는 리더십과 이를 조화해 나가는 운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간의 축적이 역사를 만들고 또 그런 자긍심이 단체를 지속하는 힘이 될 것이다.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은 창단 3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여성실내악단이다. 그간 6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 특별기획연주회, 지방 및 대학 연주회 등 200여 회의 콘서트를 가진 바 있으며 틈틈이 외국 연주를 병행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익혀온 것으로 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술적 자존심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주일엽 악장이 리더인데 이 날 60회 특별 정기연주회(12월 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는 베르트 그라트볼(Bernd Gradwohl) 지휘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막 그로웬스(Marc Grauwels)를 초청해 60회 잔치상을 보는 듯 했다.

사실 실내악단 활동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실내악 연주회를 보러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리 달가운 일은 못된다. 뿌리내리지 못한 분야이니 인지상정으로 격려차 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아카데미앙상블'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갖지만 기대하지 않은 완성도 높은 음악의 열정을 맛보았다.

하이드의 <심포니 작품 24>는 조금은 버거운 사운드였지만, 그러나 이내 지휘자 그라트볼은 유



촬영은 플루티스트 그로웬스

■ 2005. 01

■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정기연주회

■ 음악저널 1월호

#### 연주평

연하고도 세련된 지휘법으로 비엔나풍의 정화된 선율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곡 중 톨릿의 연주에 협연자로 나선 그로웬스가 매력적 보태기도 했다. 아이 드버넌(Devienne) <협주곡 7번>이 연주되었다. 그의 음악은 상상력과 판타지가 매우 탁월했다.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달린 테크닉을 구사해 음악의 집중력을 절정으로 끌어 올렸다.

그런 만큼 관객식은 이내 사포잡았다. 이런 예니지는 곧 연주하는 단원에게 전달되고 음악의 앙상블이 무르익어갔다. 대기의 음악적 퍼위가 이런 것이구나를 실감케 한 호연이었다.

아이 모차르트의 <심포니 25>에 이르러 단원은 지휘자와 일체가 되었다. 만약 우의 지휘자가 이런 순수한 듯 날렵한 왈츠 풍의 지휘를 했다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냐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서 이런 리듬과 흥취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넘치는 매력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여기서 봄에 베펬는 것과 그리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 못했다. 단원들은 삼바댄스 못에 휩쓸려 연주하고 이런 모습은 관객을 움직이는 감동의 연줄이었다. Louis Spohr에 이르러 <협주 4중 협주곡>은 정밀하고 긴밀한 호흡을 내어 새로운 레퍼토리의 신선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구성면에서 시간이 조금 남지는 듯한 느낌을 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날 밤 단원들이 체험한 음악의 기쁨은 오랜 연상으로 남은 것이다. 그런 만큼 청중들도 실내악이 마냥 지루하고 단조로운 음악이 아닐 수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단원들의 깊은 곳에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활화산처럼 타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하이든협회 주관으로 이들의 음악이 내년 스페인과의 수로 기념으로 순회연주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준비없이 떠나는 국내 일부 단체들에 비하면 알찬 내용으로 우리 예술 역량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졌다. 자리를 뜨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플루티스트는 기침을 하며 마치 노래를 할 듯이 하다가 감춘 톨릿을 꺼내 불어 이펙트를 연출했다. 음악의 각물성과 대중적 흥미가 잘 결합된 실내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인다. 레퍼토리의 구성과 전체 호흡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기억에 남을 연주회였다.

#### 서울오페라단의 <나비부인>

12월 9일 국립극장 대극장

평 · 탁계석

서울오페라단 제40회 정기공연 푸치니의 <나비부인>이 국립극장 무대에 올랐다(12월 8일-11일). 국립극장 리모델링 이후 재개관 기념을 위한 공연이다. 내년 창단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서울오페라단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지극히 보인이다.

<나비부인>은 푸치니 작품 중에서 제대로 성과를 보이기 힘든 작품 중 하나다. 예산 등의 여러 이유로 <나비부인>을 즐겨 올리지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전 막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품으로 <나비부인>을 꼽는다.

그런데 이번 평자가 본 9일 날의 공연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무대가 펼쳐지면서 가수들과의 융합된 하모니감에서 높은 충족감을 주었다. 그만큼 매력들 하나하나가 캐리커를 잘 소화했다는 이야기다. 오케스트라 역시 무리하지 않고 세련된 화법을 구사해 나갔다. 물론 극장은 리모델링 이후 눈에 띄게 음향이 나빠져 외화단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희상, 조명, 책장 처리도 능숙했고 연출의 윤택분은 빈틈없이 호흡을 유도했다.



## 5. 보도자료

01

### 국내언론

P · R · E · V · I · E · W

#### 벨기에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



벨기에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와 오스트리아 지휘자 Bernd Gradowich 초청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제60회 정기연주회.

서울아카데미앙상블과 공동주최로 오는 12월 5일 예술의전당에서 벨기에의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와 오스트리아 지휘자 Bernd Gradowich을 초청하여 연주를 갖는다. 지난 2002년 한국 하이든협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연주회(오스트리아 하이든홀)에서 호수를 함께한 연주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당시 오케스트라로 참여한 서울아카데미앙상블과 협연을 한 벨기에의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 그리고 지휘를 맡았던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Bernd Gradowich, 이 3국의 아티스트들이 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이번엔 국내 무대에서 연주를 할 예정이다.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는 벨기에 태생으로 현재 벨기에를 대표하는 뛰어난 플루티스트이다.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Flanders 오케라 극장과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1976년에는 브뤼셀 오케라 오케스트라 La Monnaie와 De Munt 벨기에 오케라 오케스트라의 피플로 솔리스트로 활동하였고 1978년에는 솔로 플루티스트로 벨기에 방송 교향악단에서 10년간 연주하였

전. 연주자로서 레퍼토리의 광범함과 자신과 정통의 뜻을 고고하게 설정하는 재능과 비상한 Marc Grauwels가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은 50여장에 달하고 있으며 장 피에르 알랑야니 제임스 클레이의 젊은 시집을 인상하게 하는 정원과 재능을 지니고 있는 아티스트로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전세계를 무대로 매년 100여 회의 콘서트를 소화하는 플루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주회 지휘를 맡은 오스트리아 Bernd Gradowich은 한국 하이든협회 고문으로도 활동중인 지휘자이다. 그는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펠라티노 출신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 지휘를 하이든 음악원, 그리프 국립 음악원 Expositor Oorschoten, 비엔나 국립 음악원과 이탈리아의 Accademia Musicale Chigiana에

30 Flute & Flutist

- 2004. 10
- 벨기에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
- Flute & Flutist

서 다분함을 획득하였고 일찍이 음악 형제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1980년 Landeskulturpreis fuer Violin과 1994년 Kulturpreis der Landeshaupstadt Eisenstadt의 바이올린 부문에서 문화예술상을 두 차례나 수상 하였다.



지휘자 Bernd Gradowich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제60회 정기연주회는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9년부터 New Classic Community 작곡가 겸 상임지휘자로 매년 연주되는 현대음악 시리즈를 주관하고 하이든 음악원 창립기념 음악회 작곡연주, 바흐와 현대음악, 모차르트 콘서트를 하였으며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을 오스트리아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지휘 하였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은 유일하게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이다. 1966년 6월에 창단되어 59회의 정기연주와 200여회가 넘는 각종 연주회를 개최해 온 여성 실내악단으로 이번 60회 정기연주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주는 한국과 스페인의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한국에서 연주를 갖게 되고 내년(2005.01.17-02.01)에는 스페인 CARMEN PIGANOL ORGANIZACION DE CONCERTOS의 초청으로 스페인 주요 10개 도시(Burgos, Avila, Valladolid, Huesca, Lleida, Girona, Malaga, Granada, Sevilla, Taragona)를 순회하는 연주행사로 예정 되어 있다.

#### 미크로필스 마스터 클래스

- 날짜: 11월 27일 - 11월 30일
- 장소: 오스모스홀
- 문의: Fluehouse 02-717-2462

관련 이번 연주의 주최와 지난 2002년 서울아카데미앙상블과 유럽의 음악가들과의 협연을 이끈 한국 하이든협회 (대표 변미경 www.haydnociety.org)는 협회 창립 이후 꾸준히 국내 음악인들의 국제적 문화교류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단체로 음악분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현대화가 2인 초청관 및 'Laydn Document'란 제목으로 하이든 관련 자료 전시회를 서울대와 공동 개최하는 등 국내 음악인들의 해외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국 하이든협회 변미경 대표는 "한국 하이든협회는 전세계 하이든협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많은 국·내외 음악인들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국제화된 클래식 문화를 만들고 싶단다"라고 작은 포부를 밝혔다. 오는 12월 5일 일요일 예술의전당에서 있을 벨기에 플루티스트 Marc Grauwels와 오스트리아 지휘자 Bernd Gradowich 초청





# 5. 보도자료

## 01 국내언론

**사 회**  
THE KOREA POLICE NEWS

**한국 하이든 협회 창립기념 페스티벌 개최**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의 본부와 한국하이든 협회 조인으로 창립된 단체



한국하이든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는 2002년 6월 12일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헨슈타트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하이든 협회 본부"에서 대표 Lr. Helmut Bieler (사진 오른쪽)와 Intendant Dr. Reicher와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사진 왼쪽)과의 조인식으로 봉입된 단체이다.

하이든협회는 하이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아이헨슈타트에서 본부를 둔 단체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여름 인터내셔널 하이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어려형사중 특히 하이든 탄생기념음악회나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하이든 관련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하이든의 작품연주에 공헌한 음악가나 앙상블에게 수상을 하는 등의 폭넓은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스트리아 아이헨슈타트에서 International Haydn Festival의 Artistic Director인 발터 라이하어(Walter Reicher)가 한국하이든협회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이든의 고향인 아이헨슈타트 출신의 지휘자 베른트 그라드볼(Bernd Gradwohl)과 함께 한국의 서울아카데미 앙상블을 특별 초빙하여 합법기념 연주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하이든협회에서도 협회창립기념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지난 2002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 서초동소재 갤러리 "홍의"에서 오스트리아 대사관 및 한국하이든협회의 주최로 "하이든의 여행"이란 제목으로 하이든 기념전시회와 "오스트리아 2인 화가전" 이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 및 오스트리아 부르크만드 주정부, "갤러리 홍의"의 후원으로 오스트리아 슈탈 회가 Wolfgang Hornath와 Sepp Laubner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후원을 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는 앞으로 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도 한국 하이든협회의 여러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각계각층의 큰 호응을 받아 향후 한국하이든협회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는

**POLICE NEWS**

2003. 01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페스티벌 개최

한국경찰뉴스

**Society**

**사 회**  
THE KOREA POLICE NEWS



뜻깊은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02년 12월 12일에는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페스티벌의 일환인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음악회"가 서울 여의도소재 영산아트홀에서, 한국하이든협회 고문인 지휘자 베른트 그라드볼(Bernd Gradwohl)(사진 왼쪽)과 Pianist이며, Graz악립음대교수인 마리아 라브마-막(Maria Larba-makki)사진오른 쪽) Seoul Academy Ensemble을 초청해 한국하이든협회 창립의 의미를 더욱 돋보여주는 음악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국하이든협회에서는 그 외에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 행사의 하나로 한빛명아원을 찾아 음악회를 개최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고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오는 2003년 2월 15일~20일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Arts Council of Cebu - 대표 Petite M.Garcia 조 총으로 한국하이든협회의 특별연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3월에는 서울대학교 및 오스트리아 대사관,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하이든 Document" 기념전시회를 갖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은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조세프 하이든의 음악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 및 개발도 보다 많은 사 발들과 하이든 음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음악 영재들을 위한 예비교육 프로그램과 하이든 관련 음악회 및 학술 세미나, 음극스 개최,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 주관의 하이든 작품 연주회, 하이든관련 동시대 예술가 작품전시회 등 폭 넓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계에서는 한국하이든협회가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문화예술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 한국하이든협회의 향후 활동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간접취재본부 심호우 기자>

**POLICE NEWS**



## 5. 보도자료

### 01 국내언론



- 2002. 11. 27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현대미술 작품전
- WTN



- 2002. 12. 11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페스티벌 개최
- 경찰신문





# 5. 보도자료

01

## 국내언론

**Music City**  
뮤직 시티

**국제하이든음악협회 한국지부 설립**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지부 설립 축하 오스트리아 초청 연주

국제하이든음악협회의 한국지부가 설립, 초대 지부장으로서 변미정 씨가 선임됐다. 국제하이든음악협회는 하이든의 고방안 유서 같은 아이겐워터타트 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지움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 여름 언터내셔널 하이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하이든 탄생일기념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하이든 관련사업을 지원, 하이든 작품 연주에 공헌한 음악가나 앙상블에게 수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하이든음악협회 한국지부의 설립은 국내의 황금로 개척이나 음악 양자를 위한 해외교육사업, 장학사업과 음악학도들의 하이든 관련 논문 지원,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의 개최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이든음악협회 한국지부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하이든의 도시인 아이겐워터타트에서 국제하이든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인 빌트 라이히가 우리 나라의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을 특별히 초청했다. 따라서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은 오는 6월 7일 오버보르트시 시장 주최로 오버보르트문화원에서 베른트의 지휘로 특별 초청 연주를 갖게 되며 6월 12일에는 우리 나라의 김 봉의 지휘로 오스트리아의 에스타 하치궁 하이든홀에서 연주를 할 예정이다. 이날 연주는 하이든의 <삼포니 제24번>과 <볼레 콘체르토 라강조>를 재현 할러스트 최정준의 협연으로 연주되며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베른트 그라트블로이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푸가>, 드비엔의 <클러 할주곡 제7번>을 벨리베 출신의 클루티스트 마크 그라블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오스트리아의 아이겐워터타트 출신인 지휘자 베른트 그라트블로이 하이든 음악회, 그라츠 국립음악원 및 비엔나 국립음악원에서 바리올린, 피아노, 작곡, 지휘의 디플롬을 취득한 뛰어난 음악가인 안베 바리올린 연주자로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현재 뉴 울머의 카레니안 상임지휘자로 많은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작품안으로 연주되는 현대 음악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다. 정현철 음악대 교수인 김 병은 국내와 해외 교향악단, 실내악단과 협연하는 중간 첼리스트이자 국내외 여러 교향악단에서 지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이든음악협회의 한국지부 설립 기념으로 초청 연주회를 갖게 된 서울아카데미앙상블은 1966년 창단한 한국 최초의 여성 실내악단으로 그동안 50여 회의 정기 연주회와 150여 회의 각종 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문의 하이든음악협회 한국지부 02-583-6295

- 2002. 06
- 국제하이든음악협회 한국지부 설립
- 음악저널 2002년 6월호

**WTN**  
WORLD TODAY NEWS  
월드투데이뉴스

문화 culture

**한국 하이든협회 창립 기념 페스티벌 개최**  
2002/11/20 11:06

오는 2002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소문로에 위치한 '문화가서 오스트리아 대사관' 및 한국 하이든협회의 주최로 '하이든의 영광' 기념콘서트와 '오스트리아 연 주가' (이 모차르트 제19번 제2 오스트리아 하이든협회 및 오스트리아 부르크라트 주정부 '갈라르 홀'의 후원으로 오스트리아 유명 작곡가인 Wolfgang Horvath 및 Sepp Laubner의 작품 연주가 개최된다.)

또한 2002년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는 '한국 하이든협회 창립기념 음악회'가 서울 여의도 소재 영산아트홀에서 하이든의 고방안 아이겐워터타트 출신의 지휘자 베른트 그라트블로이(Bernhard Gradwohl)가 피아노이며, 그라츠 국립대학교의 마리아 라바-마크(Maria Larba-mak), Seoul Academy Ensemble 재팬(Arts Council of Cebu)-대표 Pethle M Garcia 조봉으로 마련된 앙상블, 재부에서 한국 하이든협회의 특별관주 중 한국 하이든협회를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하이든 협회(Haydn society, Republic of Korea)는 2002년 6월 12일 하이든의 고방안 오스트리아 아이겐워터타트에서 하이든의 고방안 하이든협회 분부(대표 L.H Helmut Eleier (사건 오른족)과 Intendant Dr. Feischer)와 한국 하이든협회 대표 변미정(사건 한국음악의 조양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한한 하이든협회 변미정 대표는 앞으로 한국 하이든협회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한국 음악계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한국 문화외교사업으로서 하이든협회의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영문소기자-

광고안내 | 웹사이트 | 하이든협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사이트맵 | OIA | 연락처  
copyrights Since 2001 by worldtodaynews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worldtodaynews.com

- 2002. 11. 20
- 한국하이든협회 창립기념 페스티벌 개최
- WTN



## 5. 보도자료

02

## 해외언론

Seite 22 **WIEN** Mittwoch, 7. November 2012

**Scharfe Kritik von Kammer-Chefin Jank**

# Verkehrspolitik

Die heiß umfodete Verkehrspolitik der grünen Vizebürgermeisterin Maria Vassilakou hat nun auch zu einer ungewöhnlich scharfen Attacke der Wiener Kammer-Chefin Brigitta Jank geführt. Im „Krone“-Interview spricht Präsidentin Jank von einer sehr ernsten Bedrohung für die Wirtschaft. Mit der „Autofahrer-raus-Kampagne“ verjagt man auch Betriebe und Arbeitsplätze.

Ein Beispiel aus dem picketgeplagten Penzing: Ein Jung-Gastronom findet keinen Parkplatz mehr für sein Lieferauto, die Gäste bleiben aus demselben Grund weg.

VON PETER STRASSER

Seit Azin braucht er in seiner Limo für den Lebensmittellein Kauf. Ein Pickert bekommt er aber nicht, weil er in Niederösterreich wohnt – ein Teufelskreis.

Harze Kritik kam bereits von Boss der Wirtschaftskammer: Die ganze Aktion, bei der es nur um Abkassieren geht, verursache enormen Reiseschaden.

Smartguides samt Blech-Eisen-Schaukasten verschwunden

## Elektronischer Reiseführer aus Stadtinfo im Rathaus gestohlen

Da hat Smartguide-Geschäftsführer Martin Schwarz nicht schlecht gestimmt, als am Wochenende sein Telefon klingelt. Der von seiner Firma in der Wiener Stadtinformationsstelle aufgehobene E-Tablet-Reiseführer sei verschwunden. Und zwar inklusive dem schweren, höfihohen Schaukasten, in dem das Gerät verbaut war. Und das ausgerechnet mitten im Rathaus.

Stadtführer im Wiener Rathaus, ist Schwarz verlegen. Erst vor wenigen Wochen wurde der Smartguide vorgestellt und ist bereits ein absoluter Hit bei Touristen.

Der Elektronische Reiseführer, aus E-Tablet, leitet

10 Jahre bereitet die Handels-Gesellschaft in Korea – ein guter Grund für diesen Präsidenten, Byun Ji Young (A.) zu Ehren des Musikgenies ein Konzert in Wien zu organisieren. Aus Liebe zu Wien – heißt die Homepage an Joseph Haydn, die heute, Mittwoch, 19 Uhr im Palais Kinsky am Karlsplatz gegeben wird. Bismar Gradwohl dirigiert die koreanische – Frauen-Kammerorchester Seoul Academy Ensemble. Diplomatische Beziehungen zwischen Österreich und Korea bestehen seit 125 Jahren.

MA 48 unter Beschuss

### Arbeitskampf „für den Mist“

Der Arbeitskampf von 28 Ex-Mitarbeitern der MA 48, die jahrelang ohne Anstellung für die Stadt gearbeitet haben, geht in die nächste Runde. Mit Hilfe der Gewerkschaft der Gemeindebediensteten (GdG) wollen die „Abfallerwerter“ die Stadt klagen. Doch die GdG ist auf Tuschelarmen. Obwohl sie selbst ihr Chef, ÖGB-Präsident Erich Fregler, auf Seite der Klagen

meine Nutzer durch das UNESCO – Weltkulturerbe der Wiener Innenstadt und bietet aufwändig gestaltetes Bild-, Text-, Audio- und Videomaterial. Und genau um diesen Inhalt sorgt sich der Smartguide-Entwickler.

„Wenn der Schaukasten um ein paar tausend Euro verschwindet, ist das nicht so schlimm. Aber in dem Tablet stecken über 250.000 Euro an Entwicklungskosten“, berichtet Schwarz. „Was es aber jemand von der Konkurrenz oder bloß eine



- 보도일자 : 2012. 11. 07
- 창립10주년 한국하이든문화재단 &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 공식 기념연주회
- Kronen 신문



## 5. 보도자료

02

## 해외언론

**EL ADELANTADO DE SEGOVIA** 11/02/2005

Portada Publicidad Contacto Suscribirse Hoy

**InfoSegovia.com** el camino más corto

**Artículo de Cultura** Otros Artículos

### El clasicismo coreano

(24.01.2005)

En una fría noche del enero segoviano nos propone la Filarmónica una velada con una orquesta de cuerda formada por instrumentistas femeninas y coreanas con los pocos apoyos de unos cuantos instrumentistas de meta y el magistral magisterio de Marc Grauwels a la flauta. La sesión constituyó todo un éxito de público.

El programa se basaba en dos partes bien diferenciadas: la primera constituida por dos obras claves del periodo clásico, la sinfonía 24 de Haydn y la 29 de Mozart.

Un momento de la actuación del Seoul Academy Ensemble, dirigido por Bernd Gradowitz / JUAN MARTÍN

En esta parte el dominio de la orquesta se hizo patente, no tanto del dominio del sonido como de la fuerza que ejercen los temp. desatregados por el director y llevados a feliz término por la orquesta. Dos obras que luchan puestas así consecutivas entre el universo perfectamente equilibrado de Haydn y que quieren despertar al romanticismo incipiente de la visión nocturna de la sinfonía mozartiana, sinfonía honda en contraposición a la pequeña serenata nocturna tan trillada por pequeñas orquestas.

La segunda parte consistió en un festival del virtuosismo de flauta por uno de los mejores instrumentistas del momento. En primer lugar tocó el concierto n°7 de Devienne con una clase magistral. Obra de muchos problemas técnicos que no supusieron escollo para Grauwels sino ocasión para lucirse.

En segundo lugar tocó "Morceau de concours" para flauta y orquesta de Fauré, aquí el romanticismo ya se encuentra en un estado de evaluación de todos los tópicos desarrollados y la expresión es mucho más sentimental y próxima al oyente. Obra pequeña en duración y una joya en materia. El programa se cerraba con "Le merle blanc" una polca para piccolo y orquesta en la que director y solista ejercitaron, aparte de las dotes musicales, la voz cónica y coreográfica que poseen.

Se cerró el concierto con un bis que fue el interludio de Jacques Ibert, donde una vez más el virtuosismo de Grauwels acompañó al buen hacer de la orquesta coreana. En esta obra se pudo constatar el sonido empastado de los cellos, si se cerrasen los ojos nos podríamos dar cuenta del nivelismo de las cuerdas para hacer sentir su sonido al viento, o en términos generales a cualquier orquesta de cuerda europea.

En resumen, un cálido concierto de buena música clásica a cargo de una orquesta oriental con virtuosismo europeo y un ejemplo de cómo los músicos orientales se preparan bien para, aprovechándose del magisterio europeo, introducirse en las orquestas sinfónicas del viejo continente.

También habría que destacar la notable asistencia de alumnos de flauta del Conservatorio, entorpecida a sus profesores y gracias a ellos que se desplazaron hasta el teatro en esa gélida noche del invierno segoviano.

Rafael Aznar

DOMINGO 30 DE ENERO DE 2005 DIARIO DE BURGOS

MÚSICA

### Un ejemplo llegado desde Oriente

FIJAR ARLANZÓN • La Sociedad Filarmónica, en su programación trimestral, nos brindó la oportunidad de disfrutar el viernes con el extraordinario flautista belga Marc Grauwels lo supere con soltura y sobrada de técnica, dándole esa impronta personal que realza.

Concluyó la velada con tres piezas maravillosas. Benas de lirismo y de encantamiento, que Marc convirtió en unos momentos de gran emoción en el público. Revulicó, así, en Burgos sus anteriores triunfos. Esperamos verle de nuevo en la Sociedad Filarmónica.

*\*Músicólogo por la Universidad de Oviedo*

La orquesta interpretó la Sinfonía n.º 24, en Re Mayor, de J. Haydn; obra que se inicia con un Allegro muy tenso y que el compositor dedica en el Adagio escrito para flauta y cuerda, del más puro estilo concertante. Y la Sinfonía n.º 29, en La Mayor, de W.A. Mozart, obra de la época de madurez (1774) donde el compositor empieza a utilizar esta forma musical, como vehículo para expresar sus sentimientos.

Ambas piezas fueron interpretadas con soltura por la orquesta, con técnica perfecta, destacando la parte del bajo que aporta soporte armónico e importancia melódica. La orquesta, muy trabajada en todas sus secciones, si de algo adolece, es de conseguir ese punto de viveza que el compositor quiere expresar, y que les resulta casi imposible al tratarse de culturas diferentes. Merecen todo nuestro reconocimiento por el esfuerzo, interés y trabajo que aportan por dar a conocer la música occidental y su ejemplo para nosotros que no mostramos un interés recíproco.

El director llevó a la orquesta, casi de la mano, con excesiva expresividad, pero marcando los tempos correctamente y dejando la impronta de las nuevas corrientes en el mundo de la dirección orquestal.

La figura estelar fue el flautista belga Marc Grauwels, que hizo una breve aparición en el Adagio de la sinfonía de Haydn, para cerrar la primera parte de modo brillante; interpretando el Concierto n.º 7 para flauta y orquesta de F. Devienne. Partitura difícil, muy exigente por su excesivo virtuosismo, y que de-

La Seoul Academy Ensemble, el viernes en Burgos, J.L.A.



## 5. 보도자료

02

### 해외언론

burgenland ORF.at

14.02.2003 | 03:01 Eisenstadt: -7.6°C Heute kalt und allmählich sonnig

**BERND GRADWOHL**



ORF-Redakteurin Eva Hillinger hat den 33-Jährigen auf Heimaturlaub in Eisenstadt porträtiert.

**Musikalischer Botschafter in Südkorea**  
Seit zwei Jahren hat das Burgenland einen musikalischen Botschafter in Südkorea: Der Geiger und Komponist Bernd Gradwohl zählt dort zu den gefragtesten Orchester-Dirigenten.

**Erblich vorbelastet**  
Der heute 33-jährige Bernd Gradwohl ist erblich vorbelastet. Schon die Großeltern waren Musiker, die Mutter war Violinlehrerin, der Vater hat Kontrabass studiert.

**Absolutes Gehör**  
Weil der kleine Sohn bald zeigte, dass er über ein absolutes Gehör verfügte, bekam er früh Klavier- und Geigenunterricht. Mit 12 Jahren gewann er einen internationalen Kinderkompositionswettbewerb.



**Die musikalischen Schritte:**  
Haydnkonservatorium Eisenstadt, Expositur Oberschützen, die Musikuniversitäten Wien, Siena und Triest waren die nächsten musikalischen Stationen. Mit seinem Bruder, dem Cellisten Hannes Gradwohl und dem Pianisten Harald Kosik gründete Bernd Gradwohl das Eisenstädter Haydntrio, das auch jetzt, nach seinem Ausscheiden, noch sehr erfolgreich besteht.

**Zu neuen, fernen Ufern**  
Bernd Gradwohl ist zu neuen, fernen Ufern aufgebrochen. Koreanische Studienkollegen haben die ersten Kontakte eingefädelt und dem quirlig-temperamentvollen Geiger aus Eisenstadt ein Solokonzert in der 10-Millionen-Metropole Seoul vermittelt.



**Bernd Gradwohl:**  
"Es war ein bisschen Glück im Spiel, dass die Kritiken gut waren. In einem Orchester wurde ein Dirigent eingespart, aus welchen Gründen auch immer. Ich bin eingespungen und das hat so gut funktioniert, dass ich weiter mit diesem Orchester gearbeitet habe. Dann hat eines das andere ergeben."

**"Die Musik an sich"**  
Sein musikalisches Hauptinteresse sei die Musik an sich, sagt der Vielseitige und lässt sich nur ungern auf die Berufsbezeichnung Dirigent festlegen. Aber nach Solo- und Ensemblespiel fasziniert ihn im Moment eben vor allem die Orchestermusik.



**Lernen bei Carlos Kleiber:**  
Um sie zu ergründen, hat Bernd Gradwohl sogar einmal unangemeldet an die Tür des großen Carlos Kleiber geklopft. Und der Meister hat ihm zwei Stunden lang alle seine Fragen beantwortet.

**Praxis mit drei Orchestern**  
Seinen drängenden Wissensdurst befriedigt der Meisterdirigent aus Eisenstadt jetzt in der Praxis mit drei koreanischen Orchestern. Sein persönliches Ziel seien, dass der Spaß und die Freude nicht verloren gehe, sagt er.

**Gradwohl: Fühle mich als Botschafter**  
In Korea falle er schon auf Grund seines für Asiaten exotischen Aussehens auf, so Gradwohl. In der Musikszene ist er bekannt, als Star fühle er sich nicht, aber als Botschafter mitteleuropäischer Kultur.



# 5. 보도자료

## Haydnfestival im Asien



Die koreanische Haydn-Gesellschaft, eine von Präsident Byun Mi Jeung und dem Intendanten der burgenländischen Haydn-Festspiele, Dr. Reicher, ins Leben gerufene Partnerschaft, veranstaltet Mitte Dezember ein Haydn-Festival in Asien. Neben Konzerten in Korea und auf den Philippinen wird unter anderem eine Wanderausstellung "Haydn auf Reisen" gezeigt. Musikalische Botschafter sind der "Orchester in Residence", dem "Seoul Academy Ensemble" eingeladen. Eisenstädter Dirigent Bernd Gradwohl und die burgenländische Pianistin Aimo Maria Labro-Makk. In Anlehnung an die Haydn-Festspiele 2002 stehen Haydn's Sinfonie Nr. 12, dessen Klavierkonzert Nr. 11 sowie die 5. Sinfonie von Franz Schubert auf dem Programm der Asio-Haydn-tour 2007.




### Fahrschule JUHASZ informi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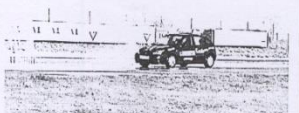
Ab 1.1.03: Mehrpersonen-Ausbildung bei Führerscheinklasse A und B  
Mit Beginn nächsten Jahres treten die von allen Parteien beschlossenen neuen Ausbildungsvorschriften zum Führerschein in Kraft.

Der wesentliche Teil davon wird beim A und B Führerschein die Einführung von einem zu abschließenden Führerscheintest sowie bei B zwei sowie bei B 17 einer Beobachtungs-fahrt sein.

Diese Ausbildungsschritte sind im ersten Jahr nach dem Führerscheinerteil zu absolvieren. Der Hintergrund dafür soll das Hauptziel der Ausbildungsphase in die ersten tausenden Kilometer sein, wo sich insbesondere der v.g. Verkehrserwerb etabliert und wo statistisch die extremste Gefährdung besteht.

Die Beobachtungsfahrten müssen für Gruppe B zwei bis vier Monate bzw. für A und B17 sechs bis zwölf Monate nach Führerscheinerteilung in der Fahrschule mit einem besonders geschulten Fahrlehrer durchgeführt werden.

Für A und B wird ein einseitige Fahrerlaubnisprüfung mit verkehrspsychologischer Mitwirkung durchgeführt: Lenk-, Bremsmanöver, Über- und Untersteuern werden nach kurzer theoretischer Einschulung trainiert. Die Psychologin werden in der Runde von 6-12 Personen vor allem folgende 3 Fragen erörtern: Was wäre mein dritter Unfall? Was würde mir die Passieren? Welchen besonderen Teil der Verantwortung im Straßenverkehr bin ich bereit zu übernehmen?



Ein bis zwei Jahre nach Einführung des neuen Systems soll dieses auch evaluiert werden, d.h. dessen Nutzen für Lenkenden und Verkehrssicherheit geprüft und eventuell adaptiert werden. Grundsätzlich ist dies auch für alle anderen Führerscheinklassen vorgesehen... Für weitere Fragen und Details steht das Team der Fahrschule Juhasz jederzeit bereit. Die Fahrtechniklehrerinnen Frau Manuela Zecola, die bereits vor ihrer Tätigkeit bei Fahrschule Juhasz professionell ausgebildet wurde, verfügt nicht nur über langjährige Erfahrung sondern auch über ein breites Themenspektrum mit u. a. ohne ABS, Lenkführung, Maßnahmen wenn die „Pegelmeter“ des Autors des Fahrzeuges ansteigt, und Ähnliches...

SALON OSSI PERLINGER  
MAISON DE COIFFURE

## Shade

Dienstag 9-12 Uhr  
Mittwoch-Freitag 10-20 Uhr  
Samstag 8-12 Uhr

JOACHIMSTRASSE 26, A-7000 EISENSTADT, TEL+FAX 02682/61043

02. WOCHE 22/2002 KULTUR

### Santana im Anflug

KONZERT / Gitarren-Superstar Carlos Santana kommt nach Österreich.

WIEN / Übermütlich, so wie der Titel seines Jahresalbums „Supernatural“, erschienen Kreativität und Charisma von Carlos Santana. Latin Rock der Superlativ ist der Imperialen Kulte von Schloss Schönbrunn am 5. Juni angeagt. T-ckets: Tel. 01/7999979.



Gitarren-Gott kommt: Seit mehr als drei Jahrzehnten steht Carlos Santana an der Spitze des internationalen Musikgeschens. Jetzt gastiert er wieder in Österreich. FOTO: ZVG

### Korea im OHO

EINDRUCKSVOLL / Das weltbekannte „Seoul Academic Ensemble“ gastiert am Freitag, dem 7. Juni, im Offenen Haus.

OBERWART / Ein Konzertereignis der besonderen Art sieht am Freitag, dem 7. Juni, auf dem Programm des Offenen Hauses Oberwart. Das renommierte „Seoul Academic Ensemble“ gastiert mit ihrem burgenländischen Dirigenten Bernd Gradwohl im OHO. Das Orchester besteht aus 40 akademischen Musikern, 30 von ihnen werden im Veranstaltungssaal das Programm bestreiten. Bemerkenswert ist die Tatsache, dass das Orchester ähnlich den Wiener Philharmonikern - sich kann. Der Grund, warum das Orchester ausgerechnet im OHO spielen will liegt in der Freundschaft und dem Vertrauen, die von Gradwohl der Leitung und den Mitarbeitern d'Hauses entgegengebracht wird. Ermöglicht wurde die Veranstaltung im OHO unter anderem durch Kooperationen mit Stadtgemeinde Oberwart und dem Kulturverein Oberwärt. Karten für das Konzert gibt es im Offenen Haus Oberwart unter Tel.Nr. 03352/385 55.



Wird Konzert leiten: seinen Dirigenten selbst gewählt hat. Bernd Gradwohl ist in unseren Breiten als Komponist und exzellenter Geiger bekannt.

### Studierende als Solisten

KONZERT / Am 2. Juni findet im KUZ Oberschützen das jährliche Hochschul-Orchesterkonzert statt.

OBERSCHÜTZEN / Einmal im Jahr haben Studierende der Kunstuniversität Graz, Institut Oberschützen, die Gelegenheit im Rahmen einer Veranstaltung der Kultur-Noriko Morimoto (Klavier) ermittel.

Den Musikern ist es nun die Möglichkeit am 2. Juni im KUZ unter der Stabführung von Bernhard Kiebel Können zu zeigen. Kartenverkauf unter Tel. Nr. 03353/7816.



International begehrt: Das renommierte Klavierduo Kutrowatz. FOTO: ZVG





# 5. 보도자료

02

## 해외언론

DONNERSTAG, 6. JUNI 2002 WOLFF IM BÜRGERLAND

### Harri heizt mit Jazz ein, Josef kredenzt edlen Wein



Unkonventionell, spontan und einfallreich – nie gleicht ein „Harry Stojka Express“-Konzert dem anderen. Der Gitarrist und seine Truppe verstehen es, das Publikum mit bluesigen und jazzigen Improvisationen mitzureißen. Heute, Donnerstag, ist es in Großwarasdorf wieder so weit. Zum Konzert werden edle Tropfen kredenzt: Der Deutschkreutzer Weinbauer Josef Gager schenkt unter anderem seine Sturs Cuvée Quatro und Cuvée Cablot ein.

► Donnerstag, 6. Juni, 19 Uhr, Kuga Großwarasdorf, Parkgasse 2; Eintritt: 5,00 €, ☎ 02614 / 7101.

---

### Klassik – made in Südkorea

Gradwohl dirigiert Seoul Academy im OHO / KURIER verlor Karten

Er ist Komponist, Dirigent und Geiger. Ein „Zerrissener“ zwischen drei Leidenschaften, wie er selbst beschreibt. Ein „Zerrissener“ ist Bernd Gradwohl aber auch, was sein Zuhause angeht. Denn das halbe Jahr dirigiert er sein Ensemble in Südkorea. Nun lockte der vielseitige Künstler, ein persönlicher Fan des Offenen Hauses Oberwart, sein erfolgreiches Seoul Academy Ensemble in das Burgenland. Am kommenden Freitag, 7. Juni, konzertiert Gradwhols Orchester in Oberwart. Sie werden mit Kompositionen von Haydn

Mozart, Devienne und Dvorak verwöhnen. Zum ersten Mal wird es im OHO ein Orchesterkonzert dieser Größenordnung geben. Denn 30 der insgesamt 40 Mitglieder des Ensembles treffen im Landesidea ein. Doch das ist längst nicht alles: Als weitere musikalische Sensation präsentiert man den berühmten belgischen Flötisten Marc Grauwels, der als Solist auftritt. Außerdem holte sich das „internationale Eisenstädter“-Gradwohl noch vier zusätzliche Wiener Musiker ihrer Blasinstrumente dazu. Auf diese Weise will er eine Verbindung zwischen Österreich und Korea auch im Klang entstehen lassen. Die Bande zwischen Südkorea und Burgenland werden am Mittwoch, 12. Juni,

mit dem Ensemble noch enger geknüpft: Im Schloss Isterházy wird nämlich die „Haydngesellschaft Korea“ gegründet. Anschließend steht ein Festkonzert am Programm.

Der KURIER verlor heute, Donnerstag, zwischen 10 und 10.59 Uhr zwei Mal zwei Karten für das Konzert im OHO unter ☎ 02602 / 73400-15.

► INFO  
Freitag, 7. Juni, 20 Uhr, Offenes Haus Oberwart, Litzke 12, 14 € / 12 € ☎ 02632 / 136530, 12. Juni, 19.30 Uhr, Schloss Isterházy, 10 €, ☎ 02602 / 61866.

ANDERSWO  
Hauptstadt braucht Luft und Sonne

8 KURIER BURGENLAND DONNERSTAG, 10. OKTOBER 2002

### BURGENLÄNDERÜBERBLICK

#### Burgenland bleibt am Abstellgleis

SPO und OVP wollen Landesverfassung nicht wirklich ändern

von Peter Jitta

Die Minister wird sich Jahren nach dem Referendum tatsächlich heiler geziehen, was eine Reform der Landesverfassung betrifft. Zwar gehen sich die Parteien weitestgehend einig, in der Sache selbst gibt aber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BEWAHRT Letztendlich werden die Parteien, die Bewegung in die Sache zu bringen. Sie wollen vor allem eine Abschaffung des Proporzsystems der Landesregierung. Das ist jenseits des Beschlusses, dass ab einer gewissen Zahl von Mandatsträgern, die in der Landesregierung vertreten sein, ab dem 10. Oktober 2002, wenn die Landesregierung in der Sache selbst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BEWAHRT Letztendlich werden die Parteien, die Bewegung in die Sache zu bringen. Sie wollen vor allem eine Abschaffung des Proporzsystems der Landesregierung. Das ist jenseits des Beschlusses, dass ab einer gewissen Zahl von Mandatsträgern, die in der Landesregierung vertreten sein, ab dem 10. Oktober 2002, wenn die Landesregierung in der Sache selbst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BEWAHRT Letztendlich werden die Parteien, die Bewegung in die Sache zu bringen. Sie wollen vor allem eine Abschaffung des Proporzsystems der Landesregierung. Das ist jenseits des Beschlusses, dass ab einer gewissen Zahl von Mandatsträgern, die in der Landesregierung vertreten sein, ab dem 10. Oktober 2002, wenn die Landesregierung in der Sache selbst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

#### Reform bleibt am Abstellgleis

SPO und OVP wollen Landesverfassung nicht wirklich ändern

von Peter Jitta

Die Minister wird sich Jahren nach dem Referendum tatsächlich heiler geziehen, was eine Reform der Landesverfassung betrifft. Zwar gehen sich die Parteien weitestgehend einig, in der Sache selbst gibt aber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BEWAHRT Letztendlich werden die Parteien, die Bewegung in die Sache zu bringen. Sie wollen vor allem eine Abschaffung des Proporzsystems der Landesregierung. Das ist jenseits des Beschlusses, dass ab einer gewissen Zahl von Mandatsträgern, die in der Landesregierung vertreten sein, ab dem 10. Oktober 2002, wenn die Landesregierung in der Sache selbst nicht weiter als SPO und OVP eine Änderung der Landesverfassung wenig Interesse haben.

---

#### Geotechnik erhitzt die Grünen

Kritik am Tempo der Arbeitsgruppe

Die Grünen haben eine Expertenkommission zum Thema Geotechnik in Burgenland bestellungsrechtlich am 13. Oktober 2002 und beschleunigte Untersuchungen für die geotechnische Zone im Burgenland beschlossen. Die Expertenkommission wird am 13. Oktober 2002 im Landtag eingesetzt.

Landrat Abgeordnetenrat hat beschlossen, dass die Geotechnik-Untersuchungen für die geotechnische Zone im Burgenland beschleunigt werden. Die Expertenkommission wird am 13. Oktober 2002 im Landtag eingesetzt.

---

#### Haydn auf Reisen: Festival in Südkorea

Burgenländische Künstler als musikalische Botschafter in Asien

Er ist Violonist, Komponist und Dirigent – ein musikalischer Botschafter, der die Welt in den Händen hat. In Südkorea wird das Festival Haydn in Seoul mit dem Namen Haydn-Festivals in Seoul durchgeführt.

Die Expertenkommission wird am 13. Oktober 2002 im Landtag eingesetzt.

---

#### Oberwart liegt jetzt im Basketball-Fieber

Turniere und Wettkämpfe die ganze Woche / Pannion Games

Freitag um 19 Uhr und um 12 Uhr die Sportveranstaltung um 12 Uhr. Aber damit nicht genug, sind am Samstag in der Oberwart Sporthalle die Basketball-Turniere der Jugendliga 1995 bis 1997 und der Jugendliga 1998 bis 2000. Die Spiele werden um 19 Uhr und um 12 Uhr im Pannion Games durchgeführt.



23. Oktober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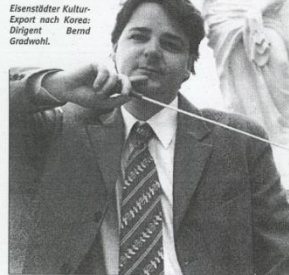
Kultur

BF · 93

# Wie Haydn in Fernost bekannt werden soll

## Bernd Gradwohl plant Festival und Tour in Korea

**Neue Haydn-Kenner gewinnen, eine Brücke in andere Kulturen bauen:** Die frisch gegründete koreanische Haydn-Gesellschaft macht's möglich.



Eisenstädter Kultur-Export nach Korea: Dirigent Bernd Gradwohl.

Joseph Haydn ist in Asien noch nicht in aller Munde. „Hier sind vor allem Mozart, Beethoven und Schubert bekannt“, erzählt der Eisenstädter Bernd Gradwohl. „Von Haydn ist kaum etwas bekannt, auch bei den Musikern und Musiklehrern nicht.“

Eine der wichtigsten, ersten Aufgaben der erst im Sommer gegründeten koreanischen Haydn-Gesellschaft ist daher die Haydn-Pflege in Südkorea fix zu verankern. „Wir planen für Dezember ein Haydnfestival in Asien, das nicht in aller Munde. „Hier sind vor allem Mozart, Beethoven und Schubert bekannt“, erzählt der Eisenstädter Bernd Gradwohl. „Von Haydn ist kaum etwas bekannt, auch bei den Musikern und Musiklehrern nicht.“

Lehrern zu Studenten und Schülern getragen wird. Neben Gradwohl führt auch die burgenländische Pianistin Alma Maria Labra-Makk nach Fernost. Neben Konzerten in Korea und auf den Philippinen in Hallen für mehrere tausend Zuhörer wird auch die von den Eisenstädter Haydn-Festspielen zusammengestellte Wanderausstellung „Haydn auf Reisen“ in Asien zu sehen sein.

**Die koreanische Haydn-Gesellschaft** kam auf Initiative von Byun Mi Jong, die Präsidentin der Gesellschaft ist, und dem Eisenstädter Haydnfestspiel-Intendanten Walter Reicher zustande. Die Burgenländer liefern künstlerisches und organisatorisches Know-how. Die Erhebung der riesigen asiatischen Märkte durch Musik von Haydn geht von Eisenstadt aus.

### Kurz & Bündig

#### Karten für Toni Stricker sichern



Siegendorf. Wenn Toni Stricker ein Konzert im Burgenland gibt, dann muss man sich rechtzeitig Karten sichern. Der Geiger konzertiert mit Michael Hintersteiniger (Violine) am 14. Dezember in der Pfarrkirche Siegendorf ein vorweihnachtliches Konzert. Beschränkte Kartenzahl! Kartenvorverkauf (20 Euro) in allen Raiffeisenbanken.

#### Österreichische Musik für einen Tag

Eisenstadt. Am Nationalfeiertag hört sich Radio Burgenland ganz österreichisch an. Den ganzen Tag wird ausschließlich österreichische Musik gespielt. Besonderer Wert wird auf burgenländische Interpreten gelegt: von Stephanie aus Neudorf, Kurt Essasser aus Wulkaprodersdorf bis zur John Fox Band und Toni Stricker.

#### Oleg Maisenberg in Lockenhaus

Lockenhaus. Pfarrer Josef Herowitsch lädt zum traditionellen Herbstkonzert mit Oleg Maisenberg auf Radio Lockenhaus. Maisenberg, weltberühmter Pianist und langjähriger Freund von Herowitsch und Gidon Kremer, spielt diesen Sonntag, 17 Uhr Tschakaloff und Prokofieff. Karten: 02612/21933.

#### Verstärkte Erinnerungen

Oberwart. „Okamenel Spornat“ (Verstärkte Erinnerungen) heißt die Ausstellung von Valentin Oman im OHO. Bis 24. November. [www.oho.at](http://www.oho.at)

### CD-Tip

**Collegium Vindobonense** W.A. Mozart: Partita B-Dur, J.N. Wenzl: Partiten Nr. 2 und Nr. 3 (pepperland music productions). Die bereits dritte CD der Serie „edition essential“ mit dem Collegium Vindobonense führt uns zu den Archiven der Familie Esterházy zurück. Die Partita ist ein schönes Beispiel für Mozarts Kunst, auf allerhöchstem Niveau zu unterhalten. Mit den Partiten Nr. 2 und 3 von Wenzl wird die in den vorhergehenden CDs bekannte Serie der 6 Partiten vervollständigt.

**Haydn Trio Eisenstadt** Joseph Haydn: Die Klaviertrios Vol. 4 (pepperland music productions). Mit der vierten CD der Gesamtausgabe der Klaviertrios Joseph Haydns legt das Haydn Trio Eisenstadt ihre neueste Einspielung vor. Ungewöhnlich frisch und unbeschwert klingen die Einspielungen. Wie beim Konzertzyklus im Haydn Saal von Schloss Esterházy wollen Verena Souris, Hannes Gradwohl und Harald Kosik auch in dieser CD-Serie alle Haydn-Klaviertrios aufnehmen. [www.oho.at](http://www.oho.at)

**Swietly-Klaviertrio** Jozef Takacs Werke für Klaviertrio; Joseph Haydn: 2 Klaviertrios (pepperland music productions). Das Swietly-Klaviertrio stellt Takacs' Originalwerke für Klaviertrio und von ihm autorisierte Bearbeitungen durch das Ensemble zwei Klaviertrios Joseph Haydns gegenüber – das bekannte Trio spielte es-moll Trio. Ein interessantes „pannonisches“ Spannungsfeld. Vertrieb für alle 3 CDs: Extraplatte. [www.oho.at](http://www.oho.at)

Landesgalerie am Oberösterreichischen Landesmuseum, Linz, Museumstraße 14, T: 0732/774482-43

### Ausstellung:

Burge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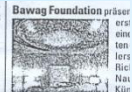
**Schloss Halbtorn** präsentiert bis 27. Oktober 2002

„Des Kaisers Pferde – Lipizzaner Schloss Halbtorn, ehem. kaiserliches Gestüt, war einst eine der Wiegen der Lipizzaner, der Kulturperle Österreichs. Der Besucher wird von Vielfalt & Besonderheit seiner gezeigten Objekte fasziniert sein. Zeitgenössische Kunstwerke zu diesem Thema aus dem In- und Ausland bilden eine reizvolle Ergänzung. Geöffnet Di-So von 10-18 Uhr. Schloss Halbtorn, T: 02172/8577, [www.schlosshalbtorn.com](http://www.schlosshalbtorn.com)

### Ausstellung:

Oberösterreich

**Neue Galerie Linz** zeigt bis 16. Juni 2002 die Ausstellungen „Richard Peter Schmid – Linzer Klauwölke - Gemälde“ und „Christian Skreini – Die 60er Jahre Fotografie“. Die erste Museumsausstellung des 1947 geborenen Wiener, Richard Peter Schmid, präsentiert Gemälde bzw. Rauminstallationen, die jeweils aus 6 kleinen Leinwänden bestehen und zyklisch formiert sind. Die Gemälde basieren auf einem ganzheitlichen Konzept, dessen zentrales Anliegen sich auf das Ausloten von Farbe und Malerei konzentriert. Die extravaganten Künstlerportraits der Wiener Szene von Christian Skreini sind Gegenstand einer Fotoausstellung rund um das Jahr 68 und zeigen u.a. Aufnahmen von C. L. Attersee, F. Hundertwasser, Hans Hollein und Arnulf Rainer. Über die Grenzen Wiens und Österreich hinaus war Christian Skreini in den 60er Jahren ein Star der Modefotografie und galt lange Zeit als Geheimtipp. Täglich von 10-18 Uhr, Di-10-22 Uhr, geschlossen am 30. Mai 2002. Neue Galerie Linz, Bärenstraße 15, T: 0732/7070-3600, <http://neuegalerie.linz.at>



**Bawag Foundation** präsentiert erstens ten lers Rici Na Kü vorrangiges Interesse nicht Entstehungsprozess des Kunststellers, sondern die Installationen und die Sammler-Bären, malenden Bett vorverändert er die Flämisch dation in ein herrlich schräg in dem Bilder fragwürdigen werden. Tägl. 10-18 Uhr, Su. u. So 15 Uhr. Bawag Found, [www.bawag-foundation.at](http://www.bawag-foundation.at)

### Kurs!

**Niederösterreich** Kreative Sommerwoche Perchtold 1.-12. Juli

Malen, Akt, Karikatur, Fotografie, Jonglieren, Steinbildhau, Silberschmied, Zauberkunst, Speckstein, Schauspielführung, Büchergestaltung, Modellbau.

[office/kreativesommerwochen.at](http://office/kreativesommerwochen.at)

### Tipps für

**Wien** Hilfe, die Globolinks

die Landung von der von W. Hackl Ensemble, es tar rums Wien-Alte Schwende Klangfestival 2002. Montag 1. reiprize, Dienstag 11 und 18 Uhr, am 18.5. 18 Uhr, Riedl tierstraße 30a, Großer Send

Landesgalerie am Oberösterreichischen Landesmuseum, Linz, Museumstraße 14, T: 0732/774482-43

### Ausstellung:

Niederösterreich

**Stiftsmuseum Klosterneuburg** präsentiert bis 17. November „Josefine Allmayr 1904 – 1977 – Ein Leben für den Schenkenmarkt in Kooperation mit dem Kierlinger Heimatmuseum präsentiert das Stiftsmuseum Klosterneuburg einen Überblick über das Gesamtwerk der populären Schenkenmalerin aus Anlass ihres 25. Todestages. Die Ausstellung behandelt die wichtigsten Themenkreise, mit denen sich Josefine Allmayr in ihren mehr als 2000 Scherenschnitten auseinandergesetzt hat: Blumen, religiöse Motive, Landschaften, Porträts sowohl lebender als auch historischer Persönlichkeiten etc. Öffnungszeiten: Tägl. außer Montag 10-17 Uhr, Führungen nur gegen Voranmeldung. Stiftsmuseum Klosterneuburg, Klosterneuburg, Stiftsplatz 1, T: 02243/11154 oder 2171, [www.stiftsmuseum.at](http://www.stiftsmuseum.at)

### Konzert:

Burgenland

**OHO** präsentiert am 7. Juni „Seoul Academy Ensemble – Klassisches Orchesterkonzert“. Dirigent: Bernd Gradwohl. Solist: Marc Grauwels (Flöte). Das Seoul Academic Ensemble besteht aus 40 Musikern, alle Akademiker und Experten auf ihrem Gebiet. Ihren Auftritten im OHO verdanken wir ihrem burgenländischen Dirigenten: Bernd Gradwohl. Seine Wunsch und sein Anliegen ist es, ein klassisches Orchesterkonzert an einem für ein klassisches Orchester dieser Größe und Qualität unüblichen Auftrittsort, dem Veranstaltungssaal des OHO. Das Programm: Josef Haydn „Symphonie Nr. 24“, W.A. Mozart „Adagio und Fuge in E-Moll“, F. De Vienne „Konzert für Flöte und Orchester Nr. 7 in E-Moll“, A. Dvorak „Serenade in E-Dur op. 27“. Wer Christian Skreini kennt weiß, dass zusätzliche Überraschungen möglich sind! Beginn: 20 Uhr. Offenes Haus Oberwart, Oberwart, Linzergasse 12, T: 03352/28 555, office@oho.at, [www.oho.at](http://www.oho.at), Clubticket Austria: 01 24 9 24, [www.clubticket.at](http://www.clubticket.at)

**CIRQUE DU SOLEIL SALTIMBANKO**  
High Five Circus  
Ab 10. Juli in Wien  
Vergnügungsbasse / Kriess  
Urlaub vom Alltag!

**Ein Musikfestival auf Erfolgskurs KISSINGER SOMMER**  
Die Elite der Stars reist ins Fränkische Oberland. Dirigent: Bernd Gradwohl. Solist: Marc Grauwels (Flöte). Das Seoul Academic Ensemble besteht aus 40 Musikern, alle Akademiker und Experten auf ihrem Gebiet. Ihren Auftritten im OHO verdanken wir ihrem burgenländischen Dirigenten: Bernd Gradwohl. Seine Wunsch und sein Anliegen ist es, ein klassisches Orchesterkonzert an einem für ein klassisches Orchester dieser Größe und Qualität unüblichen Auftrittsort, dem Veranstaltungssaal des OHO. Das Programm: Josef Haydn „Symphonie Nr. 24“, W.A. Mozart „Adagio und Fuge in E-Moll“, F. De Vienne „Konzert für Flöte und Orchester Nr. 7 in E-Moll“, A. Dvorak „Serenade in E-Dur op. 27“. Wer Christian Skreini kennt weiß, dass zusätzliche Überraschungen möglich sind! Beginn: 20 Uhr. Offenes Haus Oberwart, Oberwart, Linzergasse 12, T: 03352/28 555, office@oho.at, [www.oho.at](http://www.oho.at), Clubticket Austria: 01 24 9 24, [www.clubticket.at](http://www.clubticket.at)



## 6. 연락처

06

### Office Information

---

▶ **Representative**

변주영

Mobile : 010-6753-3271

E-mail : haydn\_festival@hotmail.com

▶ **General Manager**

성준호

Mobile : 010-9049-3409

E-mail : office@haydnsociety.org

▶ **Address and Contact**

(137-865)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31-10 삼원빌딩 307호

Phone : 070-8267-3733

Fax : 02-6937-1807

URL : [www.haydnsociety.org](http://www.haydnsociety.org)